

碩士學位論文

許蘭雪軒 文學과 生에 對한 페미니즘 研究
- 닫힌 社會에서의 自我를 찾아서 -

1994 年 12 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國 語 國 文 學 科

古 典 文 學 專 攻

金 鍾 順

碩 士 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昌龍

許蘭雪軒 文學과 生에 對한 페미니즘 研究
- 닫힌 社會에서의 自我를 찾아서 -

Study on the feminism shown in the literature
and life of Heo Nan-seol-Heon

1994 年 12 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國 語 國 文 學 科
古 典 文 學 專 攻

金 鍾 順

碩 士 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昌龍

許蘭雪軒 文學과 生에 對한 페미니즘 研究

Study on the feminism shown in the literature
and life of Heo Nan-seol-Heon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 年 12 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國 語 國 文 學 科
古 典 文 學 專 攻

金 鍾 順

金 鍾 順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4 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鄭 後 

審査委員 金 昌 龍 

審査委員 李 正 淑 

許蘭雪軒 문학과 생애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
- 닫힌 사회에서의 자아(自我)를 찾아서

김 종 순

한성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지도 교수 : 김 창 통)

(抄 錄)

許蘭雪軒은 조선 시대 엄격한 가부장 제도하에서 천부적인 예술가의 재능을 지녔으면서도 그 뜻을 활짝 펴지 못하고 비극적인 생을 살다간 여성이다. 그러나 2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그녀의 여정은 조선 시대라는 특수한 남성 지배 체제에 대한 치절한 몸부림으로 점철되었다.

여자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고 미덕이었던 시대에 蘭雪軒은 글을 배웠고 그로 인해 한 인간으로서 자아의식이 싹트게 된다. 결국 그녀의 특출함은 결혼생활에 부조화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어 규방 깊숙한 데서 눈물로 날을 보내다 비극적 생을 마감하고 만다.

蘭雪軒은 짧은 생애를 통해 사대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한시 200여수를 남겼는데 이도 그의 아우 허균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본고는 許蘭雪軒의 생애와 시를 중심으로 가부장제도하에서 남성에게 억압받는 여성의 자아의식 표출과 그 당시 금기시 되었던 사회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시들을 통해 蘭雪軒의 페미니즘적 의식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蘭雪軒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수학배경과 영향관계를 살펴 보았다.

許蘭雪軒은 선조 때 뛰어난 碩學으로 알려진 草堂公 許曄의 셋째 딸로 태어나 오빠 허봉, 동생 許筠과 더불어 글을 배우게 된다. 그녀의 부친은 딸이 글을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데 둘째 오빠 허봉의 배려와 도움으로 학문을 접하게 되며, 명석한 동생 균과 동문 수학하므로써 당대 규수로서는 얻기 어려운 행운을 누리게 된다.

8세때 지은 詩文으로 천재로 불려지기도 했던 蘭雪軒은 당시 三唐시인으로 명망이 높았던 시인 李達에게서 시를 배우기도 한다. 이로 인해 그녀의 기풍은 부친의 스승이었던 徐敬德과 李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녀의 시 가운데 주종을 이루고 있는 「仙界詩」는 徐敬德의 도교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盛唐風의 시는 이달의 영향으로 본다. 이밖에 蘭雪軒의 인생관이나 문학관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열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친과 학문의 후원자였던 둘째 오빠 허봉, 스승 이달에게서 동문수학한 동생 허균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모두 세속적인 삶의 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참된 인간성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었으며, 명분과 도리를 강조하는 유학자이기보다는 그런 체제의 모순을 꼬집고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수학 배경으로 형성된 蘭雪軒의 휴머니즘 정신과 강한 자아의식은 전통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의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蘭雪軒의 시대도 이름난 명문대가로 婦道の 엄격성이 강조된 것은 당연하다. 남편 金誠立은 미색과 학문을 겸비했던 蘭雪軒에 비해 외모나 학문이 뒤떨어지는 평범한 남자였다. 이런 남편은 과거공부를 핑계로 늘 집을 떠나 있었다. 게다가 고부간 사이도 좋지 않아 蘭雪軒의 결혼생활은 불행하기만 했다. 불행한 결혼생활은 서서히 성차별에 대한 여성의식을 인식하는 동기가 된다. 많은 蘭雪軒의 작품

이 집 떠난 임을 그리는 아녀자의 외로움이 처절하게 깃들여 있다. 이런 작품을 읽으면 임을 기다리는 여인네의 수동적인 삶의 안타까움과 함께 당시 남성들의 횡포와도 같은 패륜적 행각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蘭雪軒의 비극적 결혼생활은 한 인간으로서 자아 발견을 부추겼으며, 詩作을 통해 모순된 현실 탈피를 모색케 한다.

蘭雪軒은 「遊仙詞」와 같이 상상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닫힌 현실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다. 또 여성들이 다루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변방 수자라의 심정과 오래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군사들의 심사 등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 닫힌 세계 속에서 과감한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詩가 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안타까운 심경이 표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임금님 모실 날만을 평생토록 기다리는 궁녀의 심정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 남이 시집 갈 때 입을 옷감이나 짜면서 청춘을 보내는 가난한 집안 처자의 심사를 노래한 「貧女吟」등은 蘭雪軒의 여성의식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蘭雪軒의 여성의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성운동적인 차원의 그것은 아니다. 설사 그런 생각을 가졌던들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었겠는가. 일찌감치 인간의 도리와 가치를 배운 蘭雪軒은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적 한계를 漢詩로써 표현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본고는 조선시대의 영민했던 한 여성 작가가 닫힌 사회에서 자아의식의 형성과정과 그것이 문학 속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 지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뛰어난 문학성과 함께 휴머니즘에의 인식은 당대의 관습적 오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가 한국 여성해방사의 연구는 물론 페미니즘 문학 연구의 범주 확대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희망한다.

목 차

논문 초록

I. 서 론 /7

1. 問題의提起와 研究의 目的 / 7
2. 研究史 概觀 /10
3. 研究 方法과 範圍 /16

II. 許蘭雪軒의 생애와 페미니즘 /19

1. 家父長制와 女性意識 /19
2. 가정환경과 수학 배경 /23
 - 1) 학문의 협력자이자 후원자인 오빠 허봉 /29
 - 2) 동생 許筠과 동문 수학 /33
 - 3) 스승 李達의 영향 /38
3. 결혼생활과 성차별에 대한 자각 /41

III 許蘭雪軒의 문학과 페미니즘 /49

1. 漢詩 創作 배경과 底意 /50
2. 女性性 강조로 인한 역설적 효과 /58
3. 男性 世界의 諷刺와 告發 /69
4. 社會 矛盾 認識과 女性意識 表出 /74

IV. 결 론 /89

참고 문헌 /92

영문 요약 /95

I. 서론

1. 問題의提起와 研究의 目的

최근 문단에서는 글을 쓰는 작가나 비평가들이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쓰거나 비평하는 일이 많아졌다. 페미니즘이란 여성주의에 입각한 시각으로 그 동안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불리한 환경과 사회체제로 인하여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여성들의 자각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관점은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중심의 사회나 이념구조를 무너뜨려야만 가능하다는 급진적인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여성의 의식 개조와 함께 '운동'이라는 투쟁적인 개념에 동승하면서 그 의미는 진정한 여성권리 찾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권리 찾기란 투쟁적인 개념으로 정립되다시피 했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의 개념을 다른 여성들을 깨우치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한다는 등식으로 연결시키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는 당연한 방법론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의 여성권리 찾기의 단계를 계몽의 단계라고 봤을 때 분노하여 사회 표면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인하여 진정한 여성의 권리찾기는 사회 변혁적, 혁명적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어 페미니즘이란 어휘 자체가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운동적 개념으로 고정되다시피 한 현상은 오히려 진정한 페미니즘의 진실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투쟁일변도의 경향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은데 여성이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성역할까지 부인하는 여성주의 이론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컨대 “페미니즘이란 남성본위로 이루어진 기존질서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움직임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진정한 페미니즘이란 이태까지 노출되지 못했던 여성의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여성 스스로가 자기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위상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조화롭게 이룩하려는 노력”¹⁾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작품을 본다면 페미니즘문학의 영역은 보다 확대된다.

여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제한된 조선 사회 속에서 활동했던 여성 작가들의 자취²⁾속에서 여성 스스로의 자기 인식과 성차별에 대한 부당성 인식을 찾아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른다.

조선 사회는 어떤 시대보다도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가부장적 남성중심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철저히 배타적이었다. 그런 조선 시대의 문단에 여성으로서 그 이름을 남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 여성들의 남다른 면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許蘭雪軒은 조선시대 많지 않은 규수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여자에게는 모든 것이 닫혀 있는 조선 사회 속에서 남성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시문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남다른 재주와 기개를 가진 뛰어난 예술가임을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그의 시문들은 당대 여성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남성 지배 체제에 대한 모순적 인식은 물론 저항 의식마저 스며 있어 여성주의적 비평의 시각에서 볼 때 관심을 끌고 있다.

1) 金亨子, 「韓國 女性小說 研究」, (민지사, 1991) 18면.

2) 金智勇, 「여성문학의 質量」, 국어국문학 61, 78면에 “여성으로서 漢詩文을 남긴 분들이 모두 17인이거나 된 것은 자랑차기까지 한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서 妓女나 側室까지 헤아려도 李玉峰, 許蘭雪軒, 규생, 정부인 張氏, 三宜堂 金氏, 令壽閣 徐氏, 金芙蓉堂 등이 있으며, 군소 작가 수는 총 150여명에 달하고, 작품 수는 漢詩가 1,450여편, 산문이 170여 편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조선시대는 여말부터 전 체제를 지배하기 시작한 유학으로 인하여 여성의 권리는 男尊女卑로 해서 오로지 隸屬에 불과³⁾ 했다. 여성은 출중한 재주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부덕하다고 여기는 사회였다.

조선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但教男 不教女”라는 교육관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⁴⁾ 거의 암울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고작 국문소설이나 읽고 自嘲類의 가사나 지으며 어두운 골방에서 일생을 마쳐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孫晉泰는 여성이 경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父, 夫, 子에게 의탁하여 생활하였으며, 外出禁止, 男女交際禁止 등은 이렇게 생긴 굴욕적인 습속이라고 했다.⁵⁾

이처럼 여성에게 불리하게만 이뤄진 폐쇄사회 속에서 남성 사대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漢詩를 지었던 蘭雪軒은 시의 경지가 盛唐의 수준까지 이르렀다⁶⁾고 평가받고 있는 조선시대 대표적 여류시인이자, 盛唐風의 대표적 시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제도, 의식이 남성중심으로 이뤄졌던 조선시대에 규방 깊은 곳에서 여성으로서恨맺힌 일생을 글과 함께 살다간 許蘭雪軒의 생애와 시문을 통해 여성의식의 표출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형태의 지배체제에서도 저항세력은 늘 있었던 점으로 보아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었던 조선시대의 여성들에게도 저항의식은 있었을 것이

3) 金明姬, 「許蘭雪軒의 文學」(집문당, 1987) 6면.

4) 鄭曉燮, “李朝時代に 있어서 女性의 社會的 位置”, 숙대학보 3집, 39-45면.

5) 孫晉泰, 「女性의 地位」(대학사, 1981), 556-560면.

6) 許筠, 「惺搜詩話」, 40 ‘시가 크게 갖추어진 선조 무렵에 당나라의 시를 익혔던 여러 시인들’, (허경진 엮음, 민음사, 1982). “우리나라의 시는 선조 때에 이르러서 크게 갖추어졌다. 노소재(盧蘇齋)가 두보의 시법을 체득하자, 황지천(黃芝川)이 이어서 일어났다. 최경창(崔慶昌)과 백광훈(白光勳)이 당시를 배우고, 이익지(李益之)가 그 흐름을 밝혔다. 나의 죽은 형님이 지은 가행(歌行)은 이태백의 것과 비슷하였으며, 누님이 지은 시는 성당 때의 시에 들어 갈 만했다. 그 뒤에 권여장(權汝章)이 늦게 나와서 앞 사람들을 힘껏 쫓았으니, 용재와도 서로 어깨를 겨누며 따라갈 만하였다. 아아, 참으로 훌륭하였다.”

다. 다만 그 저항의식이나 몸부림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표출되기에는 억압의 힘이 너무 강했던 시대가 조선사회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당대의 대표적 시인이었던 許蘭雪軒의 생애와 시문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아발견과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사회의 엄격한 가부장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도전했다는 의미 부여와 함께 조선시대 여류 문학을 규방문학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 본연의 문학으로서의 자리찾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蘭雪軒의 여성 의식은 당대 여성의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을 망정, 한 여성이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 문학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보여 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것을 간파하므로서 우리 문학사에 확산되고 있는 페미니즘 비평의 범위를 넓혀보고자 한다.

그러므로서 타고난 재능을 가져 '신동', '신선'이라고까지 불렸던 한 여성이 조선이라는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 태어나 억압 속에서 살다간 비극적 삶의 궤적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과 남녀 성차별의 비극성, 여성 자각의식의 표출을 살펴 현대적 개념의 여성의식의 전통적 맥락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研究史 概觀

조선시대 여류문학의 대표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許蘭雪軒에 대한 연구는 단행본으로 나온 연구 논문만도 5권⁷⁾에 이르고 있어 비교적 문헌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밖에 조선시대 여류 연구에서도 빼

7) 許米子, 「許蘭雪軒 研究」(성신여대 출판부, 1984), 金明姬, 「許蘭雪軒의 文學」(집문당, 1987), 李淑姬, 「許蘭雪軒 詩論」(새문사, 1987), 文暻鉉, 「許蘭雪軒 全集 - 詩와 生涯」(보연각, 1972), 吳海仁, 「蘭雪軒 詩集」(路出版, 1980) 등

놓지 않고 오르고 있어 펴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

許蘭雪軒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여류 작가로서는 흔하지 않게 문집이 있다는 점이다. 蘭雪軒의 문집은 再壽甲寅字版을 비롯하여 목판본까지 전하여, 단연 여류 중에서는 唯一無二의 존재로 널리 애독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蘭雪軒의 작품이 210여수의 漢詩와 賦 1편, 散文 2편으로 다른 작가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과 남달리 27세의 나이로 마감한 짧은 생이 연구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 풍운아로 명성이 높았던 아우 許筠의 추적에 의해 누이 蘭雪軒에 대한 단상이 그의 저서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蘭雪軒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蘭雪軒의 작품집이 현재까지 전해 질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도 동생筠이 외워두었거나 받았던 것을 모아 펴냈기 때문에 蘭雪軒의 존재 자체가 許筠에 의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작품의 진위와 작품성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 전에 許筠과 蘭雪軒의 밀접한 관계는 蘭雪軒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許米子の「許蘭雪軒 研究」⁸⁾는 蘭雪軒의 생애, 작품세계, 시집간행과 판본 비교는 물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蘭雪軒에 대한 연구논문 및 비평이 전반에 걸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蘭雪軒의 의식세계를 ‘항상 동요하는 물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불안의식을 고찰하고 있으며, 현대비평방법 중에 하나인 바슐라르의 몽상적 시세계를 유추해 내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밖에 蘭雪軒에 대한 비평을 당시는 물론 고대비평적 시각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고찰하고 있는 것이

8) 許米子, 「許蘭雪軒 研究」, (성신여대 출판부, 1984). 그밖에 「韓國詩文學研究」에서도 허난설헌의 詩를 연구한 논문 게재.

특징으로, 일목요연한 정리가 蘭雪軒 평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許蘭雪軒에 대한 고대 비평은 그의 시집에 발문을 지어준 柳成龍의 『西厓集』에서 비롯하여 조선조 말기 黃玹의 『梅泉集』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집과 詩話, 詩選 등에 거론되었는데 주로 여자가 詩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칭찬과 비난, 표절 시비 여부, 순문학적 평가 등, 세 가지 견해로 나누고 있다. 아울러 許米子是 현대비평적 견해로 60년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석,박사 학위 논문들과 저서 속에 언급되고 있는 비평, 30년대 잡지를 비롯해서 학회지, 신문 등에 거론된 비평을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하게 조사, 요약 소개하고 있어 蘭雪軒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金明姬는 「許蘭雪軒의 文學」⁹⁾에서 許蘭雪軒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수사적 특성으로 사물에 기탁된 영상과 비유와 형상화로 분석하고 작품을 '삶의 체념과 미학', '그리움과 기다림의 구조', '삶의 표상과 애민의식', '宮詞와 애환 모티브', '자의식의 詩想', '자연미와 정조', '선계에의 지향의식'등 다양한 시각에서 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蘭雪軒의 영향을 준 源泉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점이 남다르다. 그러나 蘭雪軒의 문학작품을 체념의 미학으로 본 시각은 열정적이고 반항적 기질을 핏줄 속에 갖고 있었던 蘭雪軒의 문학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李淑姬의 「許蘭雪軒詩論」¹⁰⁾은 許蘭雪軒의 의식세계와 문학에 영향을 준 환경적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서두에 '환경과 문학'장을 넣어 당시의 정세, 신분, 사회일반적 요인과, 종교와 학문의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특히 蘭雪軒의 문학을 스승 李達과 같은 선상에서 도학적, 사장과 처사의 興衰속에 피어난 방외인 문학으로 보고 있어 이채롭다. 또 蘭雪軒

9) 金明姬, 「許蘭雪軒의 文學」, (집문당, 1987).

10) 李淑姬, 「許蘭雪軒詩論」, (새문사, 1987).

문학의 특질과 閨房漢文學 본질의 상호관계를 살피고 漢文學上 蘭雪軒 문학의 위치를 조명하는데 논지의 비중을 두고 있다. 이숙희는 蘭雪軒 문학의 위치를 확립하는 동시에 女人漢文學의 근간을 찾고자하였다. 그녀는 폐쇄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생명력을 창출함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정을 바탕으로 인간미를 형상화하였으며, 자기 표현의 비통한 해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강렬한 생명력은 純粹文學精神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정신이며, 이 순수한 文學精神으로 꽃피워 냈다고 보았다. 아울러 蘭雪軒의 작품은 文學精神과 함께 韓國漢文學史上 규방문학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그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그러나 蘭雪軒을 규방문학의 일인자로 평가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남성들과 대등한 관계라는 전제가 배제된 제한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蘭雪軒이 자신에게 주어진 폐쇄된 환경과 운명속에서의 문학적 탐색이 '규방문학'으로 전제된다면, 현대 여성들이나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의 작가들의 작가의식은 그 집단의 영역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문학은 어떠한 카테고리나, 이념으로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자유를 회구하는 문자 행위이다. 蘭雪軒의 문학이 당대 문학적인 분위기와 비교해서 보다 순수성을 가졌다는 견해에는 수긍이 가지만, '규방문학'이라는 범주 속에서 파악한 것은 남,여의 성차별을 인간 의식의 차별과 대등하게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반면에 張 眞¹¹⁾은 蘭雪軒의 시를 忍從과 克己, 초세적 理想詩, 여성적 감상시로 나누고, “여자다운 정감으로 詩想을 가다듬으며 登仙한 여인, 압담한 현실에 항거하면서도 忍從할 줄 하는 조선조 여류문학의 頂点이라 대물림의 마음의 샘터를 마련해 준 어머니였다”면서 蘭雪軒의 문학을 여성해방의 신호탄이라고 극찬하였다. 張 眞이 蘭雪軒의 여성문학사

11) 張 眞, “許蘭雪軒論”, 『동악어문논집 제12집』, (동악어문학회, 1980).

의 의미를 재고한 것에 이어 徐廷惠는¹²⁾ 蘭雪軒의 문학이 국문학사상 注目을 받지 못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 첫째 요인이 허균이 편집했기 때문에 남성위주의 기호에 맞추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시에서 기개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는 漢文으로 쓰여졌고 神仙의 세계에 집착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蘭雪軒의 시가 漢文으로 쓰여진 것과 남성위주의 기호에 맞추어 쓰여졌다는 것은 오히려 蘭雪軒이 여성에게는 인식했던 당대 문단에 남성 시인들과 함께 거론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蘭雪軒의 여성의식을 살펴나가는 과정에서 蘭雪軒이 漢文으로 창작을 한 底意와 남성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개 蘭雪軒의 詩 연구는 恨의 문학과 仙의 문학으로 대별되고 있는데, 恨의 문학보다는 漢詩 210여수 중 87수에 이르고 있는 <遊仙詞>를 중심으로 신선사상과 연관시켜 많이 이뤄졌다. 1958년 金用淑은 「許蘭雪軒의 꿈과 눈물」¹³⁾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遊仙詞>를 蘭雪軒의 생애와 함께 분석하고 현실 도피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73년 金錫夏의 「許楚姬의 遊仙詞에 나타난 신선사상」¹⁴⁾연구는 蘭雪軒의 仙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遊仙詞>에 나타난 仙語들을 분류 설명하면서 許蘭雪軒이 怨과 恨의 분출구를 선의 세계에서 모색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바슐라르의 사원소론¹⁵⁾을 도입, <遊仙詞>를 분석하고 있다. 徐載男¹⁶⁾은 신선사상의 개념을 자세히 밝히고 許蘭雪軒의 신선사상의 수용배경을 가정,

12) 徐廷惠, “許蘭雪軒 考究”,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13) 金用淑, 「李朝의 女流文學」, (해진서관, 1990) 361면.

14) 金錫夏, 「韓國文學의 樂園思想 研究」(일신사, 1973).

15) 가스통 바슐라르에 의하면 물질적 상상세계는 4元素인 물, 불, 공기, 흙의 세계를 뜻한다. 이 4元素의 이론은 결국 인간의 상상력은 모두 물질세계에 바탕을 두고 작용된다는 것이다.

16) 徐載男, “許蘭雪軒과 그의 詩 研究 -神仙思想을 中心으로”, (숭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사회, 학문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蘭雪軒의 신선사상의 특수성으로 첫째, 강렬성과 리얼리티의 획득, 둘째, 초월에의 의지가 현실의 낙원화로 표출. 셋째, 강렬한 사회의식 또는 당대의 현실인식의 다른 얼굴. 넷째, 共生共榮의 유토피아의 상징으로 보고 신선사상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초월적 현재로 집약하고 있다. 2즉, 봉건 사회 속에서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被投性'을 벗어나고자 하였고 그것이 초월에의 의지로 표현,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현재화로 顯現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종전의 仙詩가 현실도피적으로 파악돼 온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의 두 논저와 같은 해인 1987년 林賢珠¹⁷⁾는 蘭雪軒의 문학을 恨이나 理想의 문학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염두에 두고 직시의 기제가 작용한다'고 보고 '생애에서 소극적인 도피를 하였다면 작품 세계에서는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작품세계를 현실반영의 시, 상상의 시, 현실과 상상의 조화의 시로 나누어 분석하는 한편 동시대의 여류들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蘭雪軒 작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임현주는 蘭雪軒의 문학성을 여성으로서 강한 자아의 인식이 있다고 평하고 있다. 또 단순한 감성이 아닌 예리한 지성과 현실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반영하거나 풍자하는 작품은 蘭雪軒의 자아에서 세계로 안목을 넓혀 사회상을 꿰뚫어 보는 지성의 소유자라고 분석하고 있어 체념과 恨으로 대변되었던 蘭雪軒을 사회 인식과 자아인식이 강했던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어 새로운 평가의 안목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 여성문학인으로서 닫힌 사회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과 접맥해서 현대 여성의식적인 차원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페미니즘 비평의 영역이 조선조 여성작가들

17) 林賢珠, "蘭雪軒 文學 研究",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에게 까지 확산, 적용연구 된다면 許蘭雪軒은 당대 어느 여성보다도 연구, 논의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3. 연구 방법과 범위

그간 연구된 許蘭雪軒의 문학은 처음 단순히 조선조 여성의恨과怨의 문학으로서 보는 견해에서 차츰 현실 인식에 대한 참여의식까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당대 활동했던 여류작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蘭雪軒 문학의 특징을 살피는 작업도 부분적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현대 문학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페미니즘 비평의 시각에서 조선시대 여류 문학도 논의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어느 시대보다도 엄격한 가부장제도하에 살았던 조선시대 여성 작가들의 문학 작품은 강한 억압과 통제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여성의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許蘭雪軒의 생과 작품을 동시에 고찰하므로서 작품 속에 내재된 蘭雪軒의 생의 고민과 화해, 탈출의 시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文獻學的 研究’와 ‘歷史社會學的 研究’를 필연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게 된다. 특히 작품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蘭雪軒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유년기와 수학배경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한 작가의 문학관은 자신이 평소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철학관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난설헌의 작품을 보다 밀도 있게 살피기 위해서는 작가의 가치관의 형성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II장에서는 가정환경과 수학 배경을 문헌학적 연구를 토대로 밝히고 학문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세 사람, 즉 許篈, 許筠, 李達의 사상과 문학관, 철학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들의 공통된 생각을 추출하여 난설현의 가치관과 영향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의식 발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결혼 후의 생활과 환경을 별도 항목으로 잡아 여성의 부당성을 인식하게 되는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므로서 부당한 남성중심 세계에의 인식과 사회의식, 여성의 자아의식의 발아를 논증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핀 蘭雪軒의 가치관과 인생관,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형성된 여성의식이 문학작품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주의 비평의 시각에서 작품 검색을 우선한 후 페미니즘 비평 방법을 도입하여 여성의식의 표출 방법과 표출되고 있는 여성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蘭雪軒의 여성으로서 자아의식의 발로에 초점을 맞추고 생애와 교육, 학문과 문학관의 영향관계, 문학작품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남성중심 가부장 체제 속에서 여성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함이다. 그러므로서 현대문학에서 관심있게 논의되고 있는 페미니즘 문학의 범주에 蘭雪軒의 문학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용할 蘭雪軒 작품집은 吳海仁 譯註 『蘭雪軒 詩集』¹⁸⁾으로 전편을 역사주의 비평시각으로 고찰한 후 본고의 논지가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인용하여 페미니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갈 것이다.

18) 吳海仁, 譯註 『蘭雪軒 詩集』, (路出版, 1980), 이 번역집은 肅宗 18년(1692)의 序跋이 붙은 東萊府 重刊의 木板本이 원본이다.

“『蘭雪軒集』은 3種이 현전하고 있다. 하나는 木版本으로, 萬曆年間에 許筠이 편찬한 과격적인 再壽 甲寅字로, 宣祖39년(1606) 初刊한 壽字本이 내외를 뒤흔든 명성으로 말미암아 이내 회귀해지자 다시 宣祖 41년(1608) 明使인 朱之蕃의 <小引>과 副使 梁有年の <題辭>, 그리고 동생 許筠의 <跋>을 자필대로 옮긴 初版인 木板 初刊本이 있었으나, 모두 현전하지는 않다. 지금 流傳하는 木版本은 東萊府 重刊本으로 肅宗 18년(1692) 再刻本이다.” - 김명희, 앞의 책, 13- 14면

따라서 연구 범위는 이미 蘭雪軒의 연구가 많은 학자군에 의해 다방면으로 이뤄진 상태이므로 어떤 류의 작품이냐를 가려 선택하지 않고 우선 전 생애와 전 작품을 대상으로 억압받는 여성의식의 표출과 저항 방법 찾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II 許蘭雪軒의 생애와 페미니즘

1. 家父長制와 女性意識

가부장제란 부(父)의 권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제는 남성이 완력이나 직접적인 압력을 사용함으로써 혹은 의례나 전통, 법, 언어, 관습, 예절, 교육 그리고 분업제도 등을 통해서 여성이 할 일이 무엇이며 해서는 안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디에서나 남성 아래에 포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체계이다...(중략) ... 여성인 나의 지위나 상황이 어떠한 나에게 허락된 경제적 계급이나 성별선호도가 어떠한 나는 아버지의 지배하에 살게 된다. 가부장하에서의 여성은 남성의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를 때에만, 또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기꺼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특권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¹⁹⁾

‘家父長制’는 세계의 대다수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남성중심의 집권체제이다. 현대 여성해방사상의 초기 이론에서도 ‘가부장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²⁰⁾ 19세기에 들어 일부 국가에서 여성해방 이론이 전개되었지만 가부장제의 역사는 원시 사회의 모계 중심 사회가 부계중심으로 바뀌던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여성의 착취 형태일 것이다. 더구나 유학의 이념을 국조로 삼았던 조선시대는 ‘가부장제’의 가치 기준이 최고에 달했다고

19) 헤이터 아이젠슈타인, 한정자 역, 「현대 여성 해방사상」 (이화여대출판국, 1989). 43면

20) 이 개념은 물론 여성해방론자들에 의해 강조된 것은 아니다. 1966년 제2기 여성운동이 전개되기 전에도 버지니아 울프(1882- 1941)와 같은 여성해방론자들에 의해 사용된 적이 있다. 앞의 책, 42면.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宗法의 遵守 家禮의 普及 家朝獎勵 등의 儒敎的 禮敎는 朝鮮의 家父長的 大家族制下的 家系存續의 基礎가 되었고, 祖先祭祀의 中心的 原理가 되었다.”²¹⁾는 말에서도 朝鮮時代에는 儒敎的의 禮敎의 보급으로 社會文化的 위치에서 본 가족제도가 家父長的 大家族制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기강은 여성에게는 지극히 불리한 것으로 여성은 점차 가정, 사회, 문화에서 도외시되어 母系 女權은 크게 위축 당한 것은 당연하다. 쫓기는 조선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禮記」 內訓篇이나 「小學」등의 閨訓을 실천해야 했다. 22) 「詩經」에 ‘여자로 태어나면 맨땅에서 자고, 헌옷을 입으며, 아들딸을 낳으며, 의(義)를 지켜야 하느니라. 오직 술 빚기와 밥짓기를 꼭진히 하며, 부모를 명예 걸리지않도록 할지니라’고 했다. 주자는 이를 주석하기를 ‘무릇 여자는 순종으로서 正道를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 선할진데, 원하는 무릇 吉祥한 일이 안될 수가 있겠는가? 오직 술과 음식을 여쭙어 받들면 부모에게 근심이 없어 좋으리라’²³⁾하였다. 이러한 유학이 사회 모든 제도와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조선사회의 여성의 지위는 ‘술음식 차리기, 옷가지 하기, 소쇄하기, 아들낳기에 힘쓰도록 하고, 또 어김없이 순종시키기를 위주로 할 뿐, 절대로 일호의 자유나 조그만كم의 人權도 불허한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동양 여성의 無自由와 無人權은 참으로 支那 역대 儒聖·儒賢들의 고심과 苦口로써 맺어진 열매’라고 통탄한 이²⁴⁾도 있었다.

이러한 조선사회는 현대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다. 현대에 전개되고 있는 여성해방론은

21)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 「韓國文化史大系」,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編, 1982), 511면.

22) 黃在君, 「韓國古典女流詩研究」, (집문당, 1985), 78면.

23) 「禮記」.

24) 李能和, 「朝鮮女俗考」, 210면.

여성의 예속성²⁵⁾을 분석하되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모색을 목적으로 전개된 것을 효시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해방사상사를 15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속성을 지녔다고 보았다.²⁶⁾

이런 맥락에서 가부장제의 표본이기도 한 조선사회의 여성들에게도 스스로 억압받고 있다는 부당성의 인식은 있었다. 韓國女性史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차츰 열기가 고조되어왔는데 초기 연구 방향은 男尊女卑, 三從之道로 표현되는 한국 傳統社會 여성들의 비참한 삶이 개신교의 전래로 인해 인식되기 시작했다. 男女平等 사상이 보급되어 여성을 질곡으로 부터 구원하였다는 시각이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여성사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기독교의 근대화 기점설에 異意가 제기 되면서 근대화의 태동기를 17-8세기 實學의 평등한 人間觀에서 찾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韓國近代女性運動이 자생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근대화의 내재적 역량을 강조하는 이론이 전개되기도 했다.²⁷⁾ 근대화의 태동기가 17-8세기경이었다면 그 이전에 이미 사회 전반에는 여성들을 옥죄이고 있던 성차별체제의 모순에 대한 잠재의식은 깊이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여성 권리는 어느 정도 예속의 단계를 벗어나 동등한 위치의 자리찾기에 이르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해방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되돌아 볼 때, 조선시대 여성의

25) 존 스튜어트 밀, 金禮淑역, 「여성의 예속」, (이화여대 출판부, 1986)- 여성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의지나 자기 통제력에 의한 자기지배가 아니라, 복종과 타인의 지배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길들여 진다. 女性에게 부과되는 모든 道德律은 他人을 위해 自己를 부정하고 自身の 진정한 삶보다는 他人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義務이라고 보았다. -62면.

26) 헤스티 아이젠슈타인, 앞의 책, 16면.

27) 姜淑子, “韓國 女性 近代化의 普遍性和 特殊性”, 「여성과 문학」, (성신여대 출판부, 1990)

예속의 강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복종이었다. 忍從만이 미덕이었던 당시,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모순된 삶에 대한 반항의식이 없었겠는가.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 여성들의 삶을 당연시해 왔는 지도 모른다.

글을 아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논리²⁸⁾는 당시 지배자인 남성들의 자가당착적인 논리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대인들은 그들의 숨어서 내뿜 한숨을 외면해온 것은 아닐지 자성해 본다. 이에 많지 않은 조선조 여성들의 시문속에 감추어진 여성의식을 살펴보는 일은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조 여류 중에서도 한 남자의 아낙으로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규방에서조차 버림받은 許蘭雪軒의 시문은 남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시문중에는 자신의 情恨과 처지를 읊은 시들과 함께 다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부귀영화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언급되고 있다.

가부장제라는 관습적 지배체제로 인해 사회적, 인권적 지위를 갖지 못했던 조선조의 한 여류시인은 어떻게 현실을 인식했으며,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을까? 이미 너무 오래전에 산 사람이기에 그의 생의 진실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인 지도 모른다. 다만 그 사람의 교육환경, 생활환경, 인생관을 살펴보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은 그의 家系이다. 가계를 중심으로, 가족간의 영향관계와 수확배경을 통해

28) “조선은 자고로 여자 교육에 힘쓴 일이 없었으니,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었다. 대개 위에 앉은 이들이 여자의 구실은 그저 할형(割烹), 재봉(裁縫), 쏘소(灑掃), 정구(井舊)의 일이 고작이므로 다만 남부구고(男夫舅姑)에 순종만 시키면 되지, 더 여자에게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역사상의 문현으로 보건대, 고려 이전의 여성으로 能文한 이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나라에서 쓰는 글이 이미 한문이였으므로 남자도 통효(通曉)하기 어려웠으니 하물며 여성이 어찌 잘 통효하였겠는가? 더구나 힘써 가르치지도 아니하였음에랴?” - 이능화, 앞의 책, 358면.

蘭雪軒의 인생관과 문학관을 살피고, 작품 분석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으로 蘭雪軒의 인생과 문학 속에 투영되고 있는 페미니즘적 의식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2. 가정 환경과 수학배경

許蘭雪軒은 朝鮮朝 明宗 18년인 1563년에 태어나서 1589년 宣朝 22년 27세의 나이로 요절하기 까지 명문대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명문대가의 며느리로 살다간 朝鮮의 士大夫 집안 규수였다.

‘蘭雪軒’은 號로서 ‘楚姬’라는 이름과 ‘景樊’이라는 字가 있었는데 당시 양가의 아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라는 견해에 의해 그의 字나 名은 어린 시절 그녀의 특징을 가미해 부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름이 있어도 쓰일 곳이 없는 당대의 여인의 처지이고 보면 이름이 있고 없고의 중요성 보다는 그를 지칭한 대명사에 서린 의미를 헤아려보는 것이 蘭雪軒의 모습이나 성품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楚姬’라는 이름이 어린 시절 아명으로 집안 식구들에 의해 불리워졌다면 ‘美女와 才媛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蘭雪軒의 미모가 뛰어났으며, 재주가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字인 ‘景樊’은 ‘중국 고래의 女仙 樊夫人을 사모하여 지은 것’이라는 후대인들의 의견을 보면 그가 일찍이 도학에 관심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蘭雪軒’이라는 당호도 여성의 미덕을 찬미하는 문자인 ‘蘭惠之質’이란 문구의 ‘蘭’과 晉 謝氏의 딸이 雪을 柳絮에 비유하여 「未若柳絮之材」의 다른 표현 ‘雪’을 따서 지은 것, 또는 ‘옛부터 중국에서 고결하고 높은 경지의 士大夫들이 그 號를 蘭雪軒이라고 한 이가 많았다’²⁹⁾고 풀이 하고도 있어 蘭雪軒의 단아

하고도 고매한 상품을 짐작케 해준다.

蘭雪軒은 고려말의 유명한 재상 文敬公 許珙의 혈통을 이어 선조때 뛰어난 석학이었던 草堂公 許曄과 예조판서 김광철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허엽의 두번째 부인으로서 전실 韓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재취한 경우였다. 전실의 소생으로는 이조 병조 판서를 지낸 큰오빠 許箴과 두 언니 禹性傳 부인, 朴舜元 부인이 있었다. 蘭雪軒의 어머니는 둘째 오빠 許箴과 동생 許筠을 낳아 모두 3남 3녀의 형제를 두었다. 큰오빠 許箴(1548 -1612)은 대사성 대사간을 거치고 이조·예조·병조판서까지 올랐다. 황윤길과 함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뒤에 풍신수길의 침략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둘째 오빠 許箴은 홍문관 전한을 지냈으며, 동생 許筠도 형조·예조판서를 지내는 등 당대 명문대가로 손꼽히는 집안이었다. 형부인 禹性傳도 퇴계에게 성리학을 배워 문과에 급제한 뒤 대사성 벼슬을 하였는데 이론이 명석하고 성품이 고매하여 허씨집안과 함께 동인에 들었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다³⁰⁾. 둘째 형부 朴舜元도 관직이 군수에 이르렀다.³¹⁾

蘭雪軒은 작은 오빠와 강릉 초당리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계속 승지·대사간·대사성·부제학 등의 벼슬을 했으므로 한양으로 옮겨 자랐다. 그가 자란 곳은 한양 건천동으로 金宗瑞, 鄭麟趾, 盧守愼, 李舜臣, 元均, 柳成龍 등이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허균은 「惺翁識小錄」³²⁾에 적고 있다.

29) 李淑姬, 앞의 책, 12면.

30) 許米子, 앞의 책, 20- 21면.

31) 金明姬, 앞의 책, 10면.

32) 許筠의 문집 「惺所復瓚藁」는 시부, 문부, 설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부는 400편쯤, 설부에는 「성옹식소록」, 「성수시화」, 「도문대작」, 「한정록」이 있다. 「성옹식소록」은 허균이 합열에 유배되어 있을 시에 적은 글로 주로 들은 이야기를 194가지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蘭雪軒의 글 공부는 부친을 통한 가학이지만 여성에게는 문필적 교양이 가로막혀 있던 시대였으므로 아버지도 이를 걱정하여 그에게 정식으로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실학파의 대가인 이익 같은 이도 「성호사설」에서 '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다. 여자가 이에 힘쓰면 그 해로움이 끝없을 것이다'³³⁾라고 당시 사대부들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여자가 글을 좋아하면 팔자가 사납다고 걱정한 부친은 딸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蘭雪軒의 부친은 글 배우기를 좋아해서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거나 집으로 모시기도 해 집안의 분위기는 문장짓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으며 허봉과 허균 사이의 蘭雪軒도 글 공부하는 일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늘 문객들이 드나들고 시문을 이야기하는 형제들 틈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랐던 蘭雪軒은 남다른 총명함으로 형제들간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蘭雪軒의 형제는 모두 3남 3녀였지만 이복형제인 손위 언니 둘과 큰오빠 허성은 나이 차이가 많았다. 허성과 허봉의 나이 차이가 세살이고 허봉과 蘭雪軒의 나이차가 13세인 점으로 봐서 蘭雪軒의 탄생은 집안에 13년만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난 경우로 귀염을 받았다. 그후 6년후에 아우 허균이 태어났다. 또한 당시의 早婚風習으로 봐서 언니들도 그가 태어나기 전이나 갓난아이였을 적에 이미 출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가 귀한 집에 태어난 蘭雪軒에 대한 식구들의 사랑은 컸을 것이다. 부친도 오랫동안 얻은 여식을 각별한 애정으로 대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 부친이 자녀들에게 글 배울 적 이야기를 즐겨 얘기해주곤 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蘭雪軒을 제외시키지는 않은 듯하다. 허균은 「惺翁識小錄」에서 “ 형님과 누님의 문장은 가정에서 배운 것이며, 선친은 젊었

33) 허경진, 「허난설헌 시선」, (평민사, 1987), 106면.

을 때 慕齋 金安國에게 배웠다. 모재의 스승은 虛白堂 成倪인데, 그 형 成侃과 金守溫에게 배웠다. 두 분은 모두 泰齋 柳方善의 제자이고, 유공은 文靖公 李穡의 으뜸가는 제자였다”³⁴⁾고 한다. 그밖에도 초당의 스승은 長吟 羅湜과 花潭 徐敬德이 있다. 蘭雪軒의 詩 가운데 仙界詩가 많은 것과 신선 세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은 것도 모두 아버지를 통해 내려온 徐敬德의 영향³⁵⁾이라고 볼 수 있다. 李家源도 蘭雪軒, 허균 등이 집안의 道敎思想이 徐敬德에게서 수업한 許曄의 영향³⁶⁾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蘭雪軒 부친의 학맥은 선초부터 굵직한 인재들에 이어져 있었다. 가학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蘭雪軒의 수학배경은 자연히 부친의 사상과 기풍을 따랐을 것이다.

부친 許曄은 강직한 인물로서 정평이 나있었던 사람으로 왕조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선조 13년 2월 1일에 등지증추부사 許曄이 죽었다. 曄의 자는 태휘고 호는 초당인데, 젊어서 화담 서경덕을 따라 배우고 노수신과 친구가 되어 선비로 이름 났다. 가정(嘉靖) 병오년에 문과에 오른 즉시 사간원에 들어갔는데, 당시의 당론에 감히 이의는 내세우지 못했으나 마음으로 사류(士類)를 두호하여 일에 따라 바른 쪽을 구했으므로 칭찬할 만한 행적이 있었다. 지금의 임금 조정에 오랫동안 대사간, 대사성이 되어 직언을 좋아하면서도 사정에 맞지 않으므로 선조가 그다지 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경상감사로 승진되었다가 바로 판서 물망에 올라서 크게 쓰이게 되었었다. ... 등 서로 당파가 나누어진 뒤에는 엮이 등인의 우두머리가 되어 의론이 가장 준엄하

34) 許筠, 「惺所覆瓿藁」 卷十 ‘答李生書’

兄姊之文, 得於家庭, 而先大夫少學於慕齋, 慕齋之師成虛白倪學於其兄侃. 及金乖崖守溫, 二公皆柳泰齋之弟子, 柳公是文靖公得意門人.

35) 허경진, 「韓國의 漢詩 10 - 허난설헌 詩選」, (평민사, 1987) 121-122면.

36)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보성문화사, 1985), 225면.

였고, 박순과는 등문의 고우였다가 만년에 당파가 달라진 뒤에는 여지없이 공박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묘지(卯地)라 칭하였는데, 묘지는 오행의 방위로 따져서 정동(正東)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세 아들 성. 봉. 균. 과 사위 우성전, 김성립이 다 문장가로 조정에 올라 의론이 높았으므로, 세상에서 허씨의 당가(黨家)가 가장 번창하다고 칭하였다. (原註: 균이 悖逆을 꾀하다가 誅滅된 뒤로는 가문이 침체되었다.)³⁷⁾

여자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당대의 관행을 깨고 어린시절 부터 학문을 좋아하는 부친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蘭雪軒은 학문의 세계에 들게 되었고 8세에 「廣寒殿白玉樓上樑文」을 지어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이 상량문은 신선이 살 백옥루를 짓기 위한 상량문으로서 이미 그가 신선의 세계에 깊이 심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계의 세계를 일찍부터 탐한 이유는 부친의 가학으로 배운 영향이 컸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蘭雪軒은 <太平廣記>를 즐겨 읽어 그 긴 이야기를 모두 외었다³⁸⁾한다. <太平廣記>를 읽은 것은 그에게 선계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蘭雪軒의 학풍은 모두 아버지를 통해 내려온 서경덕의 영향³⁹⁾임을 알 수 있다.

출가하기까지의 蘭雪軒은 형제들과 어울려 학문을 배우는 등 교육의 혜택에서 크게 소외된 상태는 아닌 듯 하다. 그가 지은 <廣寒殿白玉

37) 「宣祖大王修正實錄」 14권,

二月朔辛未. 동지중樞府事許曄卒. 曄字太輝, 號草堂. 少從花潭徐敬德學, 與盧守愼爲友, 以士類著名. 登嘉靖丙午文科, 卽入諫院, 其於一時橫議, 雖不敢作異, 心護善類, 隨事救正, 有足稱者. 今上朝, 久爲諫長館長, 好直言而不切於事情, 上不甚重之. 及陞秩爲慶尙監司, 卽擬判書薦望, 將大用矣. … 東西分黨之後, 曄爲東人宗主, 議論最嚴. 與朴淳同師相友, 晚年以色目之異, 攻駁不顧, 人稱爲卯地, 以卯爲正東故也. 三子箴筠筠, 女婿禹性傳金誠立, 皆以文士登朝, 論議相高. 故世稱許氏, 爲黨家最盛. (及筠悖逆誅滅, 而門戶替矣.)

38) 허미자, 앞의 책, 27면.

39) 허미자, 앞의 책, 25면.

樓上樑文>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동이라 칭찬하였다는 이야기는 蘭雪軒의 글공부가 공공연하게 집안내에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세 이전까지의 蘭雪軒은 여느 대가집 규수 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다복한 생활을 했다. 그가 여자라는 이유로 오빠나 동생과 다르게 키워졌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형제들과 달리 학문에 소외되었더라면 좀더 일찌기 여성으로서 부당한 처지를 인식하였거나 아니면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의식하는 자아발견의 기회는 얻지 못한 채 평범한 한 규수로서 살았을 지도 모른다. 그가 어깨 넘어든지, 정식으로든지 글을 익혔다는 것은 당시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사실임을 蘭雪軒의 짧은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복한 가정환경 속에서 오빠, 동생과 더불어 당시 다른 집안의 여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학문의 즐거움, 표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선택된 환경에서 보낸 유년기는 그녀에게 있어 커다란 행운인 동시에 불행한 삶의 원인이 되었다.

그의 부친은 학문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귀히 여겨 여러 문객들을 청하여 함께 학문을 논했다. 성격이 호방하여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학자라 해도 차별하지 않은 듯하다. 이에 許曄은 서자 출신으로 입신을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蓀谷 李達을 불러 자제 교육을 맡겼는데 이달은 荷谷 許籒의 친구이기도 했다. 李達은 선조때 三唐詩人의 한 사람으로 신분이 천한 기생의 소생이란 운명으로 불우한 일생을 산 사람이다. 허균은 “어릴 때 仲兄이 蓀谷翁에게 詩를 배우라”했다⁴⁰⁾고 하는데 이때 누이 蘭雪軒도 함께 李達에게 글을 배웠다. 허균과 蘭雪軒의 나이 차이는 6세로 허균이 글을 함께 배웠을 즈음이면 이미 蘭雪軒의 나이는 10세가 넘어 시집간 나이를 14-5세로 본다⁴¹⁾면 출가하기 몇해

40) 徐廷惠, 앞의 논문, 5면.

41) “출가 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李弼龍은 선조 10년(1577), 조성항은 14-15 세, 李慧淳은 未詳, 허미자는 14 세로 잡고 있다. 그러나 詩篇을 두루

전일 것으로 추측 된다. 이 때 蘭雪軒은 이달에게서 唐詩風의 漢詩를 익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⁴²⁾ 蘭雪軒은 이달에게서 당시풍의 시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두운 현실, 사회부조리, 부귀영화의 헛됨 등 인간사의 이면을 배우므로써 비로서 자신과 가정 밖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된다.

이상과 같이 許蘭雪軒은 출중한 가문의 피를 이어받음과 아울러 뛰어난 재능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수학 하는 행운으로 조선 사회의 어느여성도 누리지 못한 錦上添花의 환경에서 少女期를 보냈다. 게다가 천부의 재능에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 서책으로 涉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시작에 있어서의 運用은 감히 남자들의 追從을 許하지 않았다⁴³⁾.

1) 학문의 후원자이며 협력자인 오빠 許筭

蘭雪軒이 그의 가족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오빠 許筭과 동생 許筠이다. 許筭은 「鶴山樵談」에서 형 許筭과 누이 蘭雪軒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핏줄이어서라기 보다 仲兄과 姊氏의 학문에 영향을 받아서 인 듯 하다⁴⁴⁾. 이들 삼남매의 우의는 남다른 것으로 전설 태생인 삼남매와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함께 수학할 수 있었던 형편은 아니었다. 다만 세살 터울인 큰오빠 許箴과 작은오빠 許筭만이 眉菴 柳希春에게 함께 글을 배웠다.

학문의 영향은 여섯 살 아래인 아우 許筠에게 받기보다는 작은 오빠

살펴보면 <江南曲>에서 莫愁가 15 세에 시집을 간다는 표현에서, 만 14세 보통 15세로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10세 전후의 早婚風習으로 미루어 선조 10년(1577) 경으로 추정된다.” - 이명희, 앞의 책, 11면.

42) 허미자, 앞의 책, 25면.

43) 김용숙, “許蘭雪軒의 꿈과 눈물”, 「朝鮮朝女流文學의 研究」, (혜진서관, 1990) 315면.

44) 徐廷惠, 앞의 논문, 6면.

許筭에게서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許蘭雪軒에 있어서 許筭은 단순히 오누이 관계라기 보다는 글과 삶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으며⁴⁵⁾, 학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발판을 만들어 준 후원자이며 협력자였다.

許筭은 열 여덟 살에 진한으로 있으면서 시론을 상소하였는데 성격이 강직하였다. 1574년 書狀官으로 다녀와 쓴 <荷谷朝天記>는 ‘명나라 皇都의 궁전과 성지의 장엄, 화려함과 舟車와 白化文物이 모여드는 光景 및 사방에서 모여드는 人物들의 상황 등이 마치 보이는 것 같다’는 칭찬을 柳成龍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李翼도 허봉의 인물됨을 “첫째, 성격이 활달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굽히지 않았다,, 둘째, 임금 앞에서 일을 논할지라도 조금도 굽힘이 없이 자기의 옳은 바를 내세웠다. 셋째, 관의 일을 돌봄에도 명쾌하고 정연하게 처리 하였다. 넷째, 냉철한 이성으로 대간으로나 어사로서 기강을 바로 잡는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다섯째, 문장은 전중하고 온아하여 시는 준일하고 호장하였다.”⁴⁶⁾고 하였다.

許筭은 1583년 蘭雪軒이 출가한지 8년 되던 해에 창원부사를 지내면서도승지 박근원, 장흥부사 송응개와 함께 栗谷선생을 논하다가 갑산으로 유배되었는데 蘭雪軒은 이때 존경하던 오빠와 헤어지는 설움을 시로 2음기도 했다.

遠謫甲山客	머나먼 갑산으로 귀양가는 나그네
威原行色忙.	함경도로 가는 행색 오죽 하시겠소.
臣同賈太傅	신하인 오라버니 가태부시지만
主豈楚懷王.	임금님야 어찌 초나라 회왕이시겠소.
河水乎秋岸	가을이라 강물은 언덕에 치렁치렁
關雲欲夕陽.	석양이라 변방 구름 서산에 뉘엿뉘엿

45) 허경진, 앞의 책, 106면.

46) 이이화, 「허균의 생각」, (뿌리 깊은 나무, 1980), 28면.

霧風吹雁去 서릿바람 차갑다 기러기때 날아가는데
中斷不成行. 이 항렬에 중간의 등강이 나 끊겨졌네요.

-(送河谷謫甲山)

후에 荷谷은 옥당 동창인 예조판서 柳成龍이 힘써 주고 아버지와 동문인 영의정 盧守愼이 애를 써서 3년뒤에야 귀양에서 풀려났다. 그는 그뒤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 벼슬의 뜻을 버리고 백운산에 들어가 글을 읽었다. 이런 하곡의 면모에서 성품을 엿볼 수 있는데 蘭雪軒을 비롯 형제들의 학문의 기풍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다.

허봉은 자연을 즐기며 노닐다가 금강산 대명암까지 들어가 머물렀으나 평소 몸을 돌보지 않고 술을 지나치게 마신 것이 병이 되어 의원을 찾아 나오다가 금화 생창역에서 서른 여덟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이는 蘭雪軒이 죽기 여섯 달 전이었다. 부친도 객지에서 병사하였고, 자식도 모두 죽었고, 글공부 나간 남편도 돌아오지 않은 불운의 나날을 보내던 蘭雪軒에게 작은 오빠 허봉의 죽음은 큰 절망을 안겨 준 또 하나의 불행이었다. 이들 남매의 우애는 무척 도타웠으며, 열 세살 위이던 오빠 하곡은 蘭雪軒의 스승이며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蘭雪軒의 슬픔과 절망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許筠의 문장은 간결하고도 무게가 있었으며, 특히 시는 뛰어나고도 호탕했다. 참으로 혜성처럼 번득인 일세의 천재였다. 일곱 살때부터 글을 지을 줄 알았으며, 열 살에는 경전과 역사에 능통하였다. 시에 있어서 일가를 이루었다⁴⁷⁾. 그와 교우인 李達은 “미숙학사의 시를 읽으면 마치 空中散花를 보는 듯하다”⁴⁸⁾고 하였다. 남아 있는 책으로 <荷谷朝天記> 이외에 <荷谷集>, <荷谷粹語>, <北邊記事>, <海東野言>등이

47) 허경진, 앞의 책, 104면.

48) 許筠, 「鶴山樵談」, 5) 허봉의 學唐 “李益之嘗曰 讀美叔學士詩若見空中散花”

있다.

허봉이 누이의 글에 대해 논평한 것은 허균의 『鶴山樵談』에 ‘나의 작은 형님이 일찌기 말씀하셨다. 경번의 글재주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대9체로 이태백과 이하(李賀)가 남겨둔 글이라고 할 만하다. 오호라! 살아 있을 때에는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더니, 죽어서도 제사를 받들어 모실 아들 하나도 없이 되었구나. 아름다운 구슬이 깨어졌으니 그 슬픔이 어찌 끝나리?’⁴⁹⁾ 라고 언급되고 있다.

허봉은 평소 말 수가 적었지만 多情多感했고 그녀의 詩文을 일일히 고쳐주고 評을 써 주기도 하고 이백, 두보 등 당시의 名詩文集을 몰래 그녀의 방에 넣어주기도 했다.⁵⁰⁾고 한다.

김명희는 “ 허봉은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는 韓愈의 문장을 읽어 문호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는 <左傳>의 글로써 간결함을 이루고, <戰國策>으로서는 종횡을 빌려야 하고, 莊子로써는 출몰을 궁구하고, <韓非子>와 <呂氏春秋>를 읽어서는 지류를 밝게 하고, <禮記>를 공부하여 志氣를 간략히 하고, 司馬遷의 <史記>로는 자유분방하고도 뛰어난 모습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詩作에 있어서는 唐音을 읽고

49) 許筠, 『鶴山樵談』,

仲氏嘗曰, 景樊之才不可學而能也. 大都太白長吉之遺音也. 嗚呼, 生而不合於琴瑟, 死則不免於絕祀, 毀璧之慟曷有極.

50) 許筠, 『荷谷集』, <題杜律卷後奉呈妹氏蘭雪軒>.

杜律一冊邵文端公寶所鈔, 比虞註, 尤簡明可讀. 萬曆甲戌, 余奉命賀節, 族泊通川, 遇陝西舉人王君之符, 接話盡日, 臨分贈余是書. 余寶藏巾箱有年, 今輟奉玉, 汝一覽, 其無負余勤厚之意, 俾少陵希聲復發於班氏之手可矣. 萬曆壬午春, 荷谷子識. (이 <杜律> 1책은 文端公 邵寶가 가려 뽑은 것인데 虞集의 주에 비하여 더욱 간명하면서도 읽을 만하다. 만력 갑술년(1574)에 내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러 갔다가 통천에서 머물렀었다. 섬서성의 거인 王之符를 만나서 하루가 다 하도록 얘기를 나누었다. 헤어지면서 이 책을 나에게 주길래 내가 책상자 속에 보물처럼 간직한 지 몇 해 되었다. 이제 아름답게 묶어서 너에게 한 번 보이노니, 내가 열심히 권하는 뜻을 저버리지 않으면 회미해져가는 두보의 소리가 누이의 손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력 임오년(1582) 봄 하곡 쓰다.)

李白의 詩를 읽으며 蘇軾과 杜牧에게서는 숨씨만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친 許曄은 자식들에게 역사를 익히게 하는 선견이 있어서 현실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역사 의식을 갖추었다고 한다. 이러한 허봉의 문학관은 蘭雪軒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⁵¹⁾고 보았다.

소녀시절 부친의 가학과 함께 허봉의 배려와 사랑이 그의 학풍의 방향과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단서들이지만 닫힌 환경 속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동생에 대한 교육을 배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허봉의 강직하고 반사회적인 반항적 기질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빠의 생각은 蘭雪軒의 사회 전반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2) 동생 許筠과 동문수학

許筠은 蘭雪軒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보다는 동문수학한 문우지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허균과 蘭雪軒은 이달에게서 시를 함께 배웠는데 蘭雪軒이 그의 시를 고쳐주기도 했다.

허균이 글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는데, 어릴적에 일찌기 「여인이 그 네를 흔들며 밀어 보낸다」는 시를 써서 그 누님 蘭雪軒에게 보였다. 蘭雪軒이 보고 말했다. 「잘 지었다. 다만 한 구절이 잘못되었구나.」 아우 균이 물었다. 「어떤 구절이 잘못되었습니까?」 蘭雪軒이 곧 붓을 끌어다 고쳐 썼다. 「문앞에는 아직도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님은 백마를 타고 황금 채찍을 쥔 채 가버렸네.」

(任相元 「郊居瑣編」卷二)⁵²⁾

51) 김명희, 앞의 책, 141면.

52) 任相元, 「郊居瑣編」卷之二.

許筠才絶人, 少時嘗賦女娘撩亂送秋千詩科體, 示其妹蘭雪軒, 蘭雪曰, 善矣, 但欠一句, 問, 所欠何語, 蘭雪乃援筆補之曰, 門前環有斷腸人, 白馬半拖黃金鞭.

이런 맥락에서 蘭雪軒보다 더 오래 지속 발전된 허균의 생각이 蘭雪軒의 세계와 같은 출발점에서 이뤄졌음을 가정해 볼 경우 蘭雪軒의 사상적 기반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蘭雪軒이 남자였다면, 蘭雪軒이 좀더 오래 詩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더라면, 蘭雪軒이 보다 열린 환경속에 살았더라면 허균과 같이 양반 계급의 횡포와 적서차별 등의 社會制度의 모순과 당쟁의 혼란함을 비판하는 개혁사상을 갖게 되었을까. 허균은 평민, 기생, 서얼 등 사람 사귀에 있어서 귀천을 가리지 않아 관직생활 중에 세 번 탄핵을 받기도 했다. 허균의 이런 생각은 당대 사대부들의 눈에는 이단으로 비쳐졌고, 결국 양천 허씨로 하여금 문중이 쑥밭이 되는 화를 당하게 하고 만다.

이이화는『허균의 생각』에서 허균의 생애를 세 시기로 구분 짓고 있다. 그 첫째 시기가 그가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수학할 때까지의 스물다섯 살까지로 보는데 이때가 그의 누나 蘭雪軒의 생존시기이다. 다섯 살부터 글을 배웠다고 하니 蘭雪軒의 나이가 11세 되던 때로 누나와 함께 공부를 한 것은 蘭雪軒이 시집가기 전까지 대략 4-5년의 기간이 된다. 그가 손곡에게서 누이와 함께 시를 배우던 동안이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였다⁵³⁾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허균은 蘭雪軒이 죽었을 때 형 하곡이 죽었을 때보다도 더욱 더 슬퍼했다고 한다. 파란많은 벼슬길에 몸담고 있을때에도 누이의 죽음만 생각하면 늘 가슴을 에어내는 듯하다고 했다⁵⁴⁾.

허균의 행장의 파란만장함은 그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허균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의 사람됨을 지나칠 만큼 나무라면서도 문장과 식견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명류록> ⁵⁵⁾에는 “허균은 천지간의 한 괴물이다. 균이 그의 일생에 걸쳐 저지른

53) 이이화, 앞의 책. 31면.

54) 許筠, “惺所覆瓿藁”, 毀壁辭并序.

55) 鄭光迺가 고인들의 도덕과 선행을 적은 책.

일은 악을 구비한 것이요, 인류의 도덕을 어지럽혔으며 행실을 더럽혔다. 이는 사람의 짓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면서 허균에의 평가는 다르다. 박종홍은 「한국학」에서 “허균은 형식화된 도덕의 탈을 쓴 세도가들의 폭정 밑에 백성들의 인간성이 유전되고 있음에 분노를 느꼈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차별적인 대우와 무능한 권력층의 횡포를 무엇보다 증오한 허균은 언제나 억울한 서민의 편에 서서 인간성의 의의를 밝히려 하였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⁵⁶⁾라고 하였다. 김태준은 “평민적인 태도로써 대중의 지도자가 되어 대중을 위하여 싸우고저 함이니 귀족, 부호, 자칭 양반들은 모두 허균의 적이었고 균의 목표는 대중 옹호와 사회 혁명이었다”⁵⁷⁾고 평가했다. 뿐만아니라 정주동은 “허균의 시대는 서구엔 중세기의 절대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때였다. 이조의 절대 권위 앞에서 용감히 도전한 한 인간주의자 허균의 마음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위대한 근대성이 싹트고 있었고 이 사상은 그대로 박 연암으로, 개화기로 그 계보를 전하는 것이다.”⁵⁸⁾고 했다.

이처럼 허균이 오늘날 혁명가로, 개혁가로, 휴머니즘의 선각자이자 실천자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문수학한 누이 許蘭雪軒과도 관련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허균은 '豪民論'을 주장했다으며, 정치는 민중을 근본으로 한 민중의 복리에 두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복리는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와 자유와 평등도 포함된다고 하는 민본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신분차별의

“ 許筠, 天地間一怪物也, (…), 況筠一生所爲, 萬惡具備, 亂常瀆行, 無復人理, 興妖造讖, 乃其長技, 此則國人之所共知也.” -「明倫錄」, 권5.

56) 이이화, 앞의책, 47면.

57) 金台俊, 「朝鮮小說史」, (한길사, 1990).

58) 鄭鉉東, 「洪吉童傳 研究」, (대구, 文豪社, 1961)

타파를 외쳤는데 서얼 금고와 여자 개가금지 철폐 주장과 인재를 고루 등용하라는 ‘遺才論’을 주장했다. 이런 생각은 실천으로 옮겨져서 허균은 많은 서얼, 평민 출신의 예술가들을 사귀고 돌보았다⁵⁹⁾

허균의 여성에 대한 생각은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준 것이요, 예법 행점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이 성인을 냈으니 내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은 어길지언정 하늘이 내린 성품은 감히 어기지 않겠다.”⁶⁰⁾고 한 것은 사람의 본능을 높이 본 분방한 말이지만, 여자를 노리개의 지위에서 남자와 같은 사람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평한 이도 있다. 이 말은 당시의 윤리 의식으로는 여자에게도 억압되고 폐쇄된 본능의 돌파구를 열어 주는 대담한 발언어어서 유교가치관에 맹목적으로 젖어있었던 선비들에게 점잖지 못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여성에 대한 생각에는 일부다처제를 부정하거나 비판한 글은 없으며, 스스로도 첩을 거느렸다고 한다. 그의 여성관은 여성에게도 남자와 같이 본능적인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애인인 부안 기생 계생과 그의 정부인 무옥에게 늘 인격적인 대우를 하였으며, 그들의 재주를 아끼고 불우한 처지를 동정하였다⁶¹⁾는 점이다. 이러한 행동일지라도 당시의 통념으로는 획기적인 것으로 당대 명문 집안의 사대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여성관을 보여준 것이다.

비록 그는 여성도 마땅히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행실과 주장으로 보아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철저히 길들여진 그 일원임을 거부할 수 없는 허균으로서는 과

59) “ 그는 권필, 조위 같은 불우한 시인들이나 서얼들말고도 평민 출신의 화가인 이 정과 이정, 천인인 유희경, 승려인 해안과 옥준, 기생인 계생과 무옥들과 가까이 지냈다.” -이이화, 앞의 책, 91면.

60) 安鼎福, 「順庵集」卷17, 張11, “天學問答”.

筠則聰明能文章, 專無行檢 …… 倡言曰 男女情慾天地 分別倫紀 聖人之教也 天尊於聖人則寧違於聖人 而不敢違天稟之本性

61) 이이화, 앞의 책, 91면.

감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허균은 중국 유학의 이단자 李贄와 비슷한 점이 많다⁶²⁾고들 한다. 정의를 동경하고 유교중심의 일정한 통념과 틀을 깨는 기이한 행동들이 비슷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그들의 사상 저변에는 개인의 자유 보다 권위를 더 앞세우는 유교의 정치 윤리와 평등관계 보다는 종적관계의 인간관의 유교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탁오는 비술를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살면서 공자와 맹자를 낮추어 보다가 끝내 탄핵을 받아 감옥에서 죽었으나, 허균은 집권체제내에 있으면서 권력층의 일원으로서 사회 개혁과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허균의 사회적인 행동은 許蘭雪軒이 세상을 떠난 후에 펼쳐진 것이어서 蘭雪軒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허균의 기본 사상들은 25세까지의 수학시기에 본 바탕이 형성되었음은 자연스런 일이다. 蘭雪軒과 함께 李達의 문하에 드나들며 배운 것은 결코 시공부만이 아니었다. 이때 배운 것이 허균 문학정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달의 간절한 애조가 깔린 시로부터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정이 많은 허균은 어릴 때 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蘭雪軒과 함께 시를 배우고 시로 화답하면서, 누이의 애뜻함과 원망의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 불행했던 그의 형 허봉이 지닌 저항의 정신과 현실불만에 대한 토로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기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시에는 다른 시인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몇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다. 첫째는 현실 불만에서 나온 저항정신이며, 둘째는 자조의 모습, 셋째는 현실도피의 정신⁶³⁾이었다.

허균 생각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절대 권위주의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인간중심의 사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휴머니즘이다.

62) 이이화, 앞의 책, 48면.

63) 이이화, 앞의 책, 148- 151면.

개인의 특성 보다는 타고난 신분의 제약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서얼 출신인 스승 이달의 고뇌였던 유교적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발이 허균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3) 스승 이달의 영향

선조때 崔慶昌, 白光勳과 함께 三唐詩人의 한 사람으로 신분이 천한 기생의 소생이란 운명으로 불우의 일생을 보낸 蓀谷 李達(1539-?)이 蘭雪軒과 허균을 만난 것은 30대 중반으로 蘭雪軒이 시집가기 전 11세에서 14,5세까지로 추정된다.

이달의 字는 益之요, 蓀谷, 西潭, 東里 등의 호를 썼으며 본관은 洪州로 新平李氏와 동족이었다. 고려인 雙梅堂 蔭의 후예로, 자손이 번성하고 과거가 많이 나서 벼슬이 연속되었으며 한 세상의 성한 가문이었다. 그러나 이달은 副正이었던 아버지 秀威과 州妓사이에 난 서출로 평생 벼슬도 못했고 버젓한 師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평생을 유랑하면서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그의 이력이며 시의 배경이었다.⁶⁴⁾

일찌기 문장에 뛰어났던 이달은 한림학관이 되었으나 서류들에게 벼슬길이 막혔음을 통탄하여 곧 물러나와 술과 방랑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달은 蘭雪軒의 아버지 許曄과 남다른 교분이 있었고 작은 오빠 許筇과는 상당히 친한 친구였다. 이런 인연으로 蘭雪軒과 허균은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고 당나라 시의 묘체를 터득했다⁶⁵⁾고 한다.

이달은 10대 후반에 湖陰 鄭士龍에게서 杜甫와 蘇軾을 공부했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는 思菴 朴淳에게 당시를 배웠다. 박순이 당시에 경도된 것이 隆慶 萬曆 연간(1567-1691) 이라 하니, 적어도 1567년 그

64) 유현숙, "이달론 -이달 시에서의 閑-", 「소석 이종찬 선생 회갑 기념 논총, 조선조 한시 작가론」, (동악어문학회 편, 1993)

65) 이이화, 앞의 책, 31면.

의 나이 29세 이후에야 박순에게 배운 것⁶⁶⁾으로 알려지고 있다. 蘭雪軒과 허균이 그에게 당시를 배운것은 蘭雪軒이 시집가기(1577)전이었어서 이달이 당시에 심취되어 있을 즈음으로 짐작할 수 있다.

허균과 이달의 첫 만남에서 교만했던 허균을 한 수의 시로 굴복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이달의 행색과는 다른 면을 발견한 허균이 인격적으로 그를 존경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蘭雪軒의 스승 이달에 대한 글이나 시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없으나 허균은 이달에 대한 글로서 '蓀谷山人傳'을 쓰기도 하였다.

蘭雪軒은 스승 이달에게서 시를 배우는 동안 그의 사람됨까지 받아들 이게 되었다. 아울러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달의 불만과 반항의식, 세상을 우습게 아는 오만 무례성 등은 허균과 蘭雪軒과도 뜻이 맞았을 것이다. 蘭雪軒은 스승인 이달과 최경창 백광훈 등의 三唐詩人들이 시를 잘 짓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동정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⁶⁷⁾

近者崔白輩	근자에 최경훈과 백광훈 분네
攻詩軌盛唐	성당을 법 받아 시를 익히어.
寥寥大雅音	한산하기 그지없던 올바른 소리
得此復鏗鏘	이들로서 다시금 쟁쟁 울려져.
下僚困光祿	낮은 벼슬 광록에 곤욕 당하면
邊郡秋積薪	변방의 벼슬살이 화근을 사고.
年位共零落	나이와 지위가 시들다 보니
始信詩窮人	시를 하면 궁하단 말 믿어야 하나.

- 遺興, 5.

이달은 기방 여자들에게 너무 빠졌으며 聖善을 기다리지 않고 품행이

66) 유현숙, 앞의 논문.

67) 허경진, 앞의 책, 106, 108면.

단정치 못하다는 세평을 들었으며, 남의 식객으로 전전하는 동안 홀대도 받고 사랑에 빠진 기녀에게 선물도 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였으나, 한 수의 시로 주인의 호의를 회복하거나 돈을 대어 받았다는 이야기가 시화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⁶⁸⁾.

이러한 이달에 대한 기록은 그가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자유 분방한 기질이라기 보다는 지배계층의 권익을 위해 만든 '서얼 영세 금고법'⁶⁹⁾에 묶여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었기에 사객으로서의 자위는 그가 세상과 대결하는 한 망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에서 배태된 시들은 오히려 주자학적 문학의 규범에서 餘技로서 시를 지었던 당대 사람들과는 다른 전문적인 詩作이 되었고 인간성이 존중된 개성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문학사적 위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유랑을 하면서 현실 고발과 힐책 보다는 혼란 속에 자기를 던져 義에 바치는 유생 의병과 그들의 존재에 대한 환기의 의미를 가지고 완곡하게 현실을 취재하였으며, 다양한 현실적 관심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변방수자리의 武人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으며, (蘭雪軒도 같은 소재의 시가 있다.) 미친한 신분의 악사라든가 하는 갖가지 인물들을 향한 휴머니티를 표출하고 있어 그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존귀함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蘭雪軒의 수학배경과 그의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형제, 스승의 학풍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蘭雪軒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었던 오빠 허봉과 동문수학한 동생 허균, 문학과 인생을 가르쳐 준 스승 이달의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간의 존귀함, 휴머니즘 정

68) 유현숙, 앞의 논문.

69) "「경국대전」에 '서얼 영세 금고법'을 끼어 넣으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서얼과 그 자손 그리고 개가한 여자의 자식은 영영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수효가 많아졌고 그 수효에 비례해서 불만도 높아졌다" - 이이화, 앞의 책, 85면.

신의 소유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보다 권위를 더 중시여겼던 유교적 사회체제의 모순을 인식했으며, 그 의식은 이들 모두의 삶을 지배했다.

허봉은 이들 중 유교적인 체제에 어느정도 적응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당론에 말려 결국 유배되었다가 풀리지만 세가로 돌아오지 않고 벼슬을 버린 채 자연을 벗삼아 떠돌다가 객사하고 만다. 당시 허봉의 나이 38세로 세속에 대한 야심이 한창일 때였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일찍이 인식하고 절로 들어갔다는 것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허균은 당시 제도나 윤리적 관습에 얽매어 인간으로서 제 뜻을 다 펴지 못하고 살았던 조선시대의 여자인 許蘭雪軒이나 서얼로서 천대받는 운명을 타고난 이달 처럼 숙명적인 제약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실천한 인물이라는 점이 남다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서얼로서 평생 떠돌이로 살았던 스승 이달이나 27세의 나이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간 누이, 또 젊은 나이로 영화를 버리고 초야를 떠돌다 객사한 형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허균은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했으며, 당대 형식화된 도덕의 탈을 쓴 세도가들의 폭정 밑에 유린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에 분노했으며, 인간의 차별대우와 무능한 권력층의 횡포를 증오했다. “허균은 언제나 억울한 서민의 편에 서서 인간성의 의의를 밝히려 하였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이단자, 반역자로 이름을 남기는 조선조의 풍운아가 되고 말았다.

이달은 허균이나 허봉과는 달리 당대 유교체제속의 신분제도의 희생자이다. 허씨 형제의 인간중심의 사고와 인식이 간접적인 것이었다면

이달의 의식은 직접적이고도 운명적인 것이었다. 타고난 신분의 제약 속에서 평생을 우울하게 살아야 했던 이달은 운명적으로 휴머니즘의 절박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허봉, 허균, 이달은 許蘭雪軒의 학문과 인생에 있어서 뱉 수 없는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이들과 관련, 또는 영향 아래서 蘭雪軒의 인생관과 문학관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세 사람 모두 유교적 권위주의 속에서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휴머니티를 인식했다는 사실은 蘭雪軒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3. 결혼과 성차별에 대한 자각

許蘭雪軒은 출가하기 전까지는 당대의 어느 여성도 누리기 힘든 선택된 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여성에게는 금지되었던 글을 읽혔으며, 사대부 남성들이나 배우는 詩를 三唐 시인의 한 명이었던 스승에게서 배우는 행운을 누렸던 것이다. 또한 명문대가의 규수로서 남자 형제들 속에서 귀염을 한 몸에 받으며, '신동'이라는 별명까지 들으며 다복한 환경 속에서 곱게 자랐다. 그러나 이러한 금상첨화의 환경은 그녀의 결혼생활을 더욱 불행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가 되고 말았다.

그의 시대는 許蘭雪軒의 집안 못지않은 당대 명문대가 安東 金氏 집안이었다. 전통 유교가문의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엄격한 婦道만이 강조된 결혼생활은 비교적 자유분방한 사상을 가진 蘭雪軒의 '여성의식'을 부추키게 된다.

그녀의 평생 반려자로 선택된 남편 金誠立은 그녀의 형제들과는 다른 유형의 남성이었다. 집안에서 글을 주고 받고 시를 고쳐주며 서로 글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정 집의 남자들과는 달랐던 것이다.

남편 金誠立은 字가 汝見, 호는 西堂이다. 明宗 17년(1562)에 출생하였으니 蘭雪軒 보다는 한 살 아래였다. 시대는 5대나 계속 문과에 급제한 문벌이었다. 김성립의 할아버지 홍도는 문과에도 장원했다. 아버지 첨도 문과에 급제하고 호당에 드나들었다. 그러나 김성립은 蘭雪軒의 짝이 되기에는 부족한 배필이었다. 許筠은 金誠立의 재주와 학식은 蘭雪軒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라고 하면서 그의 매부 김성립을 누님보다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惺翁識小錄>에서 “세상에 文理는 모자라도 능히 글을 짓는 자가 있다. 나의 매부 김성립에게 경전, 역사를 읽도록 하면 제대로 혀도 놀리지 못한다. 그러나 科文은 아주 요점을 맞추어서, 論, 策이 여러번 높은 등수에 들었다.”⁷⁰⁾며 실력이 모자라는 인물로 평가 했다.

김성립은 과거 시험에 여러번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해 결혼 후에도 독서를 핑계 삼아 외박이 잦았다. 그러다가 蘭雪軒이 사망한 해에 생원으로서 己丑增廣試의 문과 丙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홍문관 正字에 그쳤다. 蘭雪軒이 죽은 후 곧 남양 홍씨를 재취로 들었다. 역시 소생은 보지 못했으며 선조 25년(1592) 임진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거느리고 항적하다가 순절하였다.⁷¹⁾

蘭雪軒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의 뛰어난 재주와 기품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는 부적합한 여성이었다. 더우기 고부간에 극심한 불화가 있었음이 허균의 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어질고 문장이 있었으나, 그 시어머니에게

70) 許筠, “惺翁識小錄” 下.

世有文理不足, 而能製文者. 余姊壻金誠立氏, 令讀經史, 則不能措舌, 而科文極中肯綮, 論策屢入高等, 其製策自篇終逆製之, 次敎說弊次逐條, 次中頭臨寫爲冒頭, 井井不紊斯亦不可詰者.

71) 김명희, 앞의 책, 11 -12면.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 두 아이를 잃었으므로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언제나 누님을 생각하면 가슴 아픔을 어쩔 수 없었다. 황태사의 애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가 흥씨에게 시집간 누이동생을 슬퍼한 정이 너무나 애절하고 슬퍼서, 그로부터 천년 후에 동기간을 잃은 슬픔이 이처럼 서로 같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본따서 슬픔을 펴 본다.

- (惺所覆瓿藁)⁷²⁾

蘭雪軒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않은 것은 당시 풍습으로 본다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조선조의 전통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의 학문은 婦道에 어긋난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은 재능이 없는 것으로 德을 삼는다”는 말과 통한다. 洪大容은 시가 여성의 正道가 아니라고 하고 여자가 덕행으로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약간의 시로 이름이 썩지 않은들 무슨 다행함이 있겠느냐 하고 인간으로서의 덕성을 중시하며 蘭雪軒의 덕성이 부족함을 비판하기도 했다.⁷³⁾ 여자는 詩文을 일삼아서 안 될 뿐더러 이를 힘쓰면 폐해가 많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당대에서 평범한 며느리로 살기에는 蘭雪軒은 너무 비범했던 것이다. 게다가 자신 보다는도 똑똑한 아내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가정을 멀리하고 바람끼마저 있었던 아들이 과거에 급제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을 부덕한 며느리 탓으로 돌렸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그녀의 비범함과 남다른 학문에의 열정이 조선시대 이성윤리의 근간이 되었던 三從之道를 실천할 수 없는 비운의 삶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72) 許筠, 「惺所覆瓿藁」, 毀壁辭并序.

余亡姊, 賢而文章, 不得於其姑, 又喪二子, 遂齎恨而歿. 每念則畫傷不已, 及讀黃太史辭, 其痛洪氏妹之情, 悲切怛切, 千載之下, 同氣之慟, 若是其相類, 故效其文而抒哀也.

73) 洪大容, 「율병연행록」 1766년 2월 6일.

결혼생활과 적의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 식구들, 좋아하는 학문을 마음놓고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蘭雪軒은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타는 학구열을 남몰래 삭여야 했던 蘭雪軒, 여자라는 이유로 오고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忍苦의 삶을 살아야 했던 蘭雪軒은 자신이 깨달은 삶의 본령과는 너무도 먼 관습의 굴레에 얽매어 불행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집간 지 3년만에 경상감사로 내려갔던 친정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다가 상주 객관에서 죽는 비보를 접한다. 이어 3년후에는 작은 오빠 허봉이 귀양을 가게되고 5년후 객사하게 된다. 이 사이 어린 아들 딸을 모두 잃은 蘭雪軒도 죽기 4년전인 1585년에 상을 당해 외삼촌댁에 머물다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시를 쓰고 예언대로 27의 나이로 1589년 3월19일에 자신의 책과 유고를 모두 불살라 줄 것을 유언하고 한 많은 세상을 떴다.

그러나 蘭雪軒의 죽음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다. 사랑하는 오빠 허봉이 죽은 지 6개월여만에 눈을 감은 蘭雪軒의 주검이 病死나 自然死로 보기에겐 너무 젊은 나이인 점을 감안 해 볼 때 자살이라는 견해⁷⁴⁾는 타당성이 있다.

蘭雪軒이 일찌기 꿈속에서 월왕(月皇)이 운을 부르며 시를 지으라 하기에 「아리따운 연꽃 스물 일곱 송이/ 붉은 꽃 떨어지고 서릿발만 싸늘해라」고 지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경치가 날날이 생각나므로 <夢遊記>를 지었다. 그 뒤에 그녀 나이가 27세 되었다.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금년이 바로 3.9의 수(3×9=27)에 해당되니, 오늘 연꽃이 서리에 맞아 붉게 되었다」 하고는 유연히 눈을

74) 서정해, 앞의 논문, 25면. '그녀의 自殺說도 터무니 없지는 않는 것 같다'고 보았다.

잡았다.

-(具樹勳 “二句錄” 下)75)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蘭雪軒의 죽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런 병도 없이 젊은 사람이 죽겠다는 예언대로 죽을 수 있을까. 이는 죽음을 위해 자해적인 행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임에 분명하다. 만약 蘭雪軒 스스로 어떠한 자해적인 행동을 취한 죽음이라고 가정할 때 오히려 자연사 보다는 충분하고 명백한 동기를 갖고 있다. 蘭雪軒이 신선의 경지에 이르러 불교의 스님들이나 도교의 도인들이 맞이하는 죽음을 맞는 것이라 해도 속세적인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다. 중국에 蘭雪軒의 시를 보고 경탄한 나머지 蘭雪軒을 깊이 사모하여 이름을 '경란'이라 짓고 蘭雪軒의 글을 흉내내어 시를 지은 한 규수가 있었다. 그 규수는 자신도 蘭雪軒처럼 27세가 되어 죽겠노라고 옷을 깨끗이 갈아 입고 방안에 들어가 누어 있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자신은 蘭雪軒 처럼 높은 경지에 들지 못함을 한탄하고 도장에 들어가 여도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후에 '소설헌'이라는 호로 시집을 낸 경란의 이야기가 더 인간적인 진실일 수 있다. 현대의 과학적인 사고로는 蘭雪軒의 죽음은 자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蘭雪軒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가정할 때 성립되는 자살 동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첫째는 삶의 좌절감이다. 두아이를 잃고, 뱃속에 있는 아이마저 잃는 蘭雪軒은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커녕 사랑조차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시어머니와의 불화는 그녀의 생활을 더욱 비참한 형태로 몰고 갔으리라. 둘째는

75) 「稗林」卷九, 具樹勳, “二句錄”下.

許蘭雪軒嘗夢上界, 至月宮, 月皇呼韻, 賦應製曰, 芙蓉一朵花, 三九霜墮紅, 覺來歷歷可想, 仍作夢遊記. 及年二十七無所病, 忽一日沐浴更衣, 謂家人曰, 今年乃三九之數, 今日霜墮紅, 悠然而逝, 此詩全篇, 在於本集云.

친정의 몰락이다. 부친의 사망과 더불어 그녀가 가장 좋아했으며, 그녀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었던 許篈의 객사는 그녀를 더욱 깊은 실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셋째는 좋아하는 학문에의 열정을 표출하기에는 환경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초당 모옥을 지어 그곳에 기거하였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그녀에게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삶의 의지가 상실된 상태로 여겨진다. 모든 것이 등돌리고 있는 상황은 그녀가 죽음을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는 가정을 해 본다. 물론 문헌이나 기록 어디에도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보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살을 가정해볼 정도로 그녀의 삶은 男尊女卑의 폐쇄된 사회 속에서 질식되어가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녀의 남다른 학식과 천품을 받아들여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미 의식 속에 자라고 있는 인간주의에 대한 자아의식은 오히려 그녀에게는 암적 존재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蘭雪軒이 두 자식을 연이어 잃고 나서 그들의 무덤가에서 통곡을 하며 지은 「哭子」는 당시 蘭雪軒의 절망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특히 이 시의 제11, 12행에서 ‘縱有腹中孩/ 安可冀長成’ 이라고 하여, 뱃속에 들어 있는 아이의 죽음을 예원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점이다. 그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이가 태중에 있는 채로 세상을 뜬 것은 아닌지 자못 답답할 뿐이다. 만약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蘭雪軒이 죽었다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곧 자신의 죽음을 예시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去年喪愛女	지난 해는 귀여운 딸을 잃었고
今年喪愛子.	올해는 사랑스런 아들 잃다니.
哀哀廣陵土	서럽고 서러워라 광릉 고장에

雙墳相對起.	두 무덤 나란히 만들어졌네.
蕭蕭白楊風	백양나무 쓸쓸하다 바람이 불고
鬼火明松楸.	도깨비불 소나무에 비치이누나.
紙錢招汝魂	지전으로 너희들 넋을 부르고
玄酒尊汝丘.	무덤에다 명물 한 잔 부어 놓는다.
應知第兄魂	알고 말고 너희들 형제의 넋이
夜夜相追遊.	밤마다 서로서로 따라 노닐을.
縱有腹中孩	아무리 뱃속에 아이 있다만
安可冀長成.	그 어찌 장성하길 바라겠느냐.
浪吟黃臺詞	부질없이 황대사를 읊조리자니
血泣悲吞聲.	비통한 피눈물에 목이 메인다.

—(哭子)

蘭雪軒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면 그 사실은 왜 은폐되었을까? 집안 식구들과 떨어진 초당에 기거한 蘭雪軒의 죽음이 돌연사로 보일 가능성도 배제키는 어렵다. 다만 자유와 인본주의의 의미를 알았던 蘭雪軒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부장제 모순에 질식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남성 중심의 모순된 삶을 스스로 마감하므로서 여성도 남성의 전유물이나 부속물이 아닌 한 인간임을 입증해 보인 과감한 결단이 아니었는지, 그녀의 짧은 생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Ⅲ. 蘭雪軒의 문학과 페미니즘

許蘭雪軒의 작품으로는 漢詩 215수와 국문가사 <閨怨歌>, <鳳仙花歌>와 기타 <廣寒殿白玉樓 上樑文>, <恨情一疊>, <夢遊廣桑山詩序> 등 文과 辭가 있다. 저작은 많았으나 임종시 유언대로 소실되고 동생 균이 모아 엮은 것이 현전하는 작품 대부분이다.

蘭雪軒의 작품은 조선조를 내려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찬과 비난을 받았지만 비난의 대부분은 여성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이 못마당한 당대 유교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작품 자체의 문학성은 당대 남성 작가들과 함께 언급⁷⁶⁾될 정도였다.

蘭雪軒의 작품은 쓰여진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여러 연구에서 결혼 전 보다는 결혼 후에 쓰여진 것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의 작품 연구에 있어서 쓰여진 시기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蘭雪軒의 생애와 여성의식은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쓰여진 연대를 알 수 없어 작품 분석을 통해 추측해 볼 따름이다.

蘭雪軒의 문학 세계는 다양하고 풍부하다. 조선조의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없는 자, 소외된 자의 삶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의 형제나 스승이 겪었던 자유와 반항의 기질인 자유주의 정신과 접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귀중한 가치를 발견한 인간주의자로서의 蘭雪軒은 결국 가부장제에서 신음하는 여성들의 아픔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에게 점잖은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

76) 註87), 88) 참조.

은 허균의 선각자적 관심이 첫번째 이유이겠지만 작품 자체가 갖는 고도의 문학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먼저 許蘭雪軒이 아녀자들이 즐겨 지어 불렀던 국문 가사등의 장르를 선호하지 않고 굳이 漢詩 창작에 전념한 배경과 底意를 살펴보고 작품 분석에 들어가고자 한다.

1. 漢詩 創作 배경과 底意

許蘭雪軒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조건, 즉 전통유교적인 가부장적 사회제도 속에서 굴종만이 미덕이고, 오히려 학문을 알고 깨달음이 있을수록 고통의 폭만 커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詩作을 택한 당대 지식인 계층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삶을 지탱해 나갈 현실적인 근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자신의 혹독한 삶을 원망한 조선의 한 여자이기도 했다. 자식을 잃은恨과 부부간의 불화, 결혼한 지 10여년이 되어도 벼슬 길에 나가지 못하는 남편의 불운 등은 蘭雪軒에게는 삶의 중압감을 주는 요소들이었다. 蘭雪軒의 이러한 박복한 환경은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詩作마저 몇몇하게 할 수 없게 했다.

蘭雪軒에게는 三恨이 있었다고 한다. 蘭雪軒이 평생을 두고 한스러워했다는 세가지恨은 첫째, 이 넓은 세상에 하필이면 왜 조선에 태어났을까? 둘째, 하필이면 왜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갖지 못한 서러움을 지녀야 하나? 셋째, 수많은 남자 중에서 왜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을까? 77)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콤플렉스는 모두 '여자'라는 성별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蘭雪軒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을 탓하기보다

77) 文脈奎, 「韓國漢文學史」, (정음사, 1961) 203면.

는 여자로서의 권리, 여성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을 恨으로 여긴 것이다. 이는 여성 자신이 여성이기를 거부하지않고 여성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자유롭게 표출하기를 회구하는 현대 페미니즘 이론에도 부합되고 있다.

고대소설 「朴氏傳」과 같은 작품은 여성이 남성 보다 나은 지략과 기개로 남성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가정'과 '결혼'을 지키려는 것으로 남성우월주의에 순응하는 반증을 보여 주고 있어 페미니즘 시각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속성을 가진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왜냐하면 朴氏는 결국 당대 사회의 이상적 남성상의 模寫에 불과⁷⁸⁾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 시각에서 창작된 일련의 작품들이 나오기 까지 우리 문학사에 페미니즘 이론이 지향하는 여성중심적 사고나 인간으로서의 여성의식이 전제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 페미니즘 비평계의 진단이다. 그 이유는 대개의 작품에서 여성은 남성의 남성스러움(masculinity)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는 한도 안에서 그 여성스러움이 살려지고, 이와는 달리 여성의 여성스러움은 남성에게 대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蘭雪軒은 결코 여자인 것을 탓하지 않았다. 이는 그녀의 두 번째 컴플렉스에서 보다 확연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서러움에 대한 恨은 바로 여성의 고유한 기능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남자가 되어 맘대로 호령하며, 살기를 원하였다면 결국 남성본위의 사회구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그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택되었듯이 김성립이라는 남자에게 선택된 것을 세번째의 恨으로 여겼다. 그녀의 오빠나 동생 군과 같

78)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7면.

79) K. K. Ruthven, 김정수 옮김, 「페미니스트 문학비평」 (탐출판사, 1989), 59면.

이 시문을 이해하고 부부가 글을 주고 받을 수 있었기를 소원 했던 것이다. 이는 부부간의 사랑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이라는 조국이 가부장제도로 여성을 옥죄이는 체제의 나라이듯이 김성립이라는 남편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불합리하고 옹졸한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김성립은 당시의 유교적 전통과 체제에 순응한 한 평범한 남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蘭雪軒 또한 당대의 규방의 범도를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규수는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이 남성만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곱게 보아줄 수 없었듯이 남편 김성립도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한다면 김성립이 고배한 아내의 학식과 생각에 기가 눌리고 열등감에 빠졌다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든 남성들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蘭雪軒이 죽자 허균은 친정에 흠어져 있던 시와 자기가 외우고 있던 詩文 200여수를 모아서 <蘭雪軒集>을 엮었으나 펴내지 못하고 있다가 1598년 정유재란을 도우러 명나라에서 원정나온 문인 오명제에게 누이의 시 200여편을 외워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에서 간행된 <朝鮮詩選>, <列朝詩集>등에 蘭雪軒의 시가 실려 중국에서 먼저 알려지게 되었다. 이즈음에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은 조선의 蘭雪軒이라는 시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써 그녀의 이름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오갔다. 대개의 중론은 이자가 시를 지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시적 표현이 뛰어남에 놀라면서도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남편을 그리워 하며 지은 시를 방탕하다고 비난⁸⁰⁾했으며, 蘭雪軒의

80) 李晬光, 「芝蜂類說」 卷十四

許蘭雪軒氏, 正字金誠立之妻, 爲近代閨秀第一, 早夭, 有詩集行世. 平生琴瑟不諧, 故多怨思之作, 其采蓮曲曰, 秋淨長湖玉流, 荷花深處繫蘭舟, 逢郎隔水投蓮子, 遙被人知半日羞. 中朝人購其詩集, 至入於耳談. (… 평생토록 부부간의 금실이 좋지 않아서 원망이 많았으니, 그로 인하여 지은 것이 <채련곡>이다. 그리고 중국사람이 그의 시집을 사다가 《耳談》에 넣기까지 했다.)

덕행이 시보다 못하다⁸¹⁾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옛사람의 말만 전용한 것이 많다는 트집을 잡기도⁸²⁾하고, 표절시비가 일기도 했다가 허균

金誠立少時，讀書江舍。其妻許氏寄詩云。燕掠斜簷兩兩飛，落花撩亂撲羅衣，洞房極目傷春意，草綠江南人未歸。此兩作近於流蕩，故不載集中云。(김성립이 젊었을때에 한강 옆의 서재에서 독서할 적에, 허씨가 시를 부쳤다. 그것이 '제비는 처마 비스듬히 짝지어 날고/ 지는 꽃은 요란스럽게 비단 옷 위를 스치누나./ 동방에서 기다리는 마음 아프기만 한데/ 풀은 푸르러도 강남에 가신 님은 여지껏 돌아오지 않네.' 이 두 작품은 뜻이 방탕스러운데 가까우므로 시집에 실지 않았다.)

8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三, '天涯知己書'.

… 且其詩，爲錢受之・柳如是，指摘瑕類，無所不至，亦薄命也。世所傳許氏詩云，皆儻浪，如妾身非織，郎豈是牽牛。亦中國詩也。(…또 그의 시가 錢謙益의 처인 柳如是의 경우와 같이 결함을 지적하자면 걸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또한 기박한 운명이다. 세상에서는 허씨의 시를 모두 맹랑하다고 한다. 이물테면, "침이 직녀가 아니니/ 낭군이 어찌 견우일 수 있으랴." 라고 한 시도 중국 사람의 시이기 때문이다.)

8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五, '嬰處雜稿'.

宣祖朝以下文章，多可觀也。詩文并均者，其農岩乎。詩推挹翠軒爲第一，是不易之論。然至淵翁而後，成大家藪，蓋無體不有也。纖麗而成名家者，其柳下乎，癡疾於模唐者，其蓀谷乎。蘭雪全用古人語者多，是可恨也(선조조 이후로 나온 문장은 불만한 것이 많다. 시와 문장을 겸한 이로는 김창협이 있고, 시로는 읍취헌 박은을 으뜸으로 친다는 것이 확고한 논평이다. 그러나 金昌翁에 이르러 대가를 이루었으니 이는 어느 체제이든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섬세하고 화려하여 名家를 이룬 이는 洪世泰일 것이고, 당나라를 모방하는데 고질화된 이는 李達일 것이며, 許蘭雪軒은 옛사람의 말만 전용한 것이 많으니 이것이 유감스럽다.)

「稗林」卷八，金時讓，「涪溪紀聞」下。

金著作誠立妻，許筠之姊也。能文章早死，筠哀集遺藁，目爲蘭雪軒集。至受跋語于華使，以侈其傳。或言其多剽竊他作，而余固不信也。及余謫鍾城。求得明詩鼓吹于人則，許集中，儻琴振雪春雲暖，環珮鳴風夜月寒。一律八句載在鼓吹。乃永樂詩人吳世忠之作也。余於是始信或者之言。嗚呼。取華人之作，而欲瞞華人之目。是何異盜人之物。而還賈於其人乎。(김성립의 아내는 허균의 누이인데, 문장에 능했다. 일찍이 죽었는데 균이 그 유고를 모아 <蘭雪軒集>이라 제목을 붙였고, 중국 사신에게서 발문까지 받아 시집을 빚냈다. 어떤 사람이 그 유고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 많이 표절되었다고 하기에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내가 鍾城에 귀양살면서 한 사람에게 명나라 <고취곡>을 얻어보니, 「난설헌집」중의 “儻琴振雪春雲暖，環珮鳴風夜月寒”이라한 칠언율시 8구가 <고취곡>에 들어 있는데, 이는 永樂시대의 吳世忠의 작품이

이 역적으로 처형되자 그를 미워하던 무리들은 蘭雪軒의 시는 허균이 써 준 것이라고 까지 악평⁸³⁾했다. 여자가 시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받아야 했던 비난은 비교적 선구적이고 자유스러웠던 지성인들, 즉 실학자들에게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淵巖 朴趾源은 「熱河日記」에 실린 ‘避暑錄’에서, 중국 문인들의 견해까지 보이면서 자기의 비난을 전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대체 규중 부인으로 시를 읊는 것은 아름다운 일은 아니나, 이 외국에 한여자로서 꽃다운 이름이 중국에 까지 전파되었으니 가히 영예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부인으로서는 일찌기 그

었다. 내가 그제서야 어떤 이의 말을 믿게 되었다. 아! 중국 사람의 작품을 표절해서 중국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하였으니, 이 어찌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도로 그 사람에게 팔려는 것과 다르겠는가?)

83) 洪萬宗, 「詩話叢林」, 申欽, 「晴窓軟談」.

許草堂之女, 金正字誠立之妻, 自號景樊堂, 詩集刊行于世. 篇篇警絕, 所傳廣寒殿上樑文, 瑰麗清健, 有似四傑之作, 而但集中所載, 如遊仙詩, 太半古人全篇, 嘗見其近體二句, 新粧滿面猶看鏡, 殘夢關心懶下樓. 此乃古人詩, 或言其男弟筠 剽竊世間未見詩篇, 竄入以揚其名云, 近之矣. (허초당의 딸은 정자 김성립의 아내인데, 자호를 경번당이라 하였다. 시집이 세상에 간행되었는데 편마다 매우 뛰어났다. 전해오는 <백옥루상량문>은 아름답고 청건하여 흡사 王勃, 楊炯, 盧照隣, 駱賓王 등 초당의 사걸의 작품과 같았다. 다만 시집 가운데 실려 있는 <유선사> 같은 작품은 태반이 옛 사람의 전편이다. 일찌기 그의 근체시 두 귀절을 보니, ‘고운 얼굴 거울에 비춰보다가/ 애뜻한 꿈 깨면 다락에서 내려오네’ 는 바로 옛사람의 시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의 남동생 균이 세간에서 보지 못하는 시편을 표절해서 몰래 집어 넣어 그의 이름을 드날리게 한 것이다.” 하니 그 말이 사실에 가깝다.)

-이러한 비평은 허균과 당파가 달라서 원수처럼 지내던 신희이 말한 것으로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같은책 附證正(韓國學文獻研究所刊)에서 余見許氏蘭雪 送其兄荷谷謫甲山詩 五言律頸聯 河水平秋岸 關雲欲夕陽 卽是唐人全句 無一字異同 此可謂活剽生吞者也(내가 난설헌이 그 오빠 허봉이 갑산으로 귀양가는 것을 전송하는 시 가운데 오언율시의 제5.6귀를 보니 “河水平秋岸, 關雲欲夕陽”이라는 것은 곧 중국 사람의 귀절로서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으니 산 채로 잡아 삼킨 것이라 하겠다.) 라고 주장하기도 함.

의 이름이나 자가 본국에도 나타나지 못했은즉, 이 난설의 호 하나라도 오히려 분에 넘치는 일이다. 하물며 경번의 이름으로 그릇 알고는 군데군데에 기록되어서 천추에 씻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가 어찌 세상의 재사(才思)가 풍부한 규중 재녀들의 의당히 경계하여야 할 거울이 아니겠는가.

- (朴趾源 「熱河日記」)⁸⁴⁾

왜 蘭雪軒의 시는 중국에서 먼저 알려졌으며, 그들 사이에서 더 진가를 발휘했을까. 왜 조선의 사대부 남성들은 그녀의 시를 가버이 여기거나 흠을 잡으려 했을까. 그 해답은 그녀의 시적 표현이 남성들 조차 흉내 낼 수 없는 놀라운 경지였다는 것은 물론 바로 자신들(사대부 남성)을 향해 던지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蘭雪軒도 국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蘭雪軒이 지은 국문가사 2편이 전해지고 있다.) 漢詩를 고집한 점은 주목을 끈다. 당대 사대부 남성들의 전유물 (간혹 기녀들이 지었으나 이는 그들이 상대하는 남성들과의 교제를 위한 餘技로 이뤄졌다)이었던 漢詩를 선택한 것은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무언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주로 남성일 것을 감안하고 지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蘭雪軒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으로서 의식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들이 한문을 배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드문 것이 당대의 현실이었다. 또한 世宗이 아녀자들과 평민들을 위해 만들어 의도적으로 규방등에서 익히도록 보급한 한글이 보편화 되고 있을 때였기

84) 朴趾源, 「熱河日記」, 「避暑錄」.

… 太約閨中吟咏本非美事, 而以外國一女子, 芳播中州可謂顯矣, 然吾東婦人, 未嘗以名與字見於本國 則蘭雪之號, 一猶過矣, 況乃認名景樊 在在見錄, 千載難洗, 可不爲有才思閨彥之炯鑑也哉.

때문에 여인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다면 언문 시를 지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蘭雪軒은 漢詩를 지었으며, 읽을 만한 독자층은 자연히 여자들 보다는 남자들이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문자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예민한 요소이다. 페미니즘 문학 비평에서도 남녀의 문학 사이에는 남녀의 문학 생활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그랬듯이 뚜렷한 국경선이 그어져 있었음을 상기 시켜 주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한글과 한문이 諺文/眞文으로 대립되었을 때는 그 '諺'의 원래의 의미가 「상스럽다」, 「속되다」 등을 의미하였지만 무엇 보다 치명적인 것은 諺/眞의 대립이 보여주고 있듯이 「참되지 못한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바로 이 諺의 문학이 다른 아닌 여성 문학이었던 것이다. 이미 페미니즘 문학은 기득권을 장악한 「문학」에서 한쪽 구석진 곳으로 쫓겨난 문학⁸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蘭雪軒은 남성들만의 언어로 알고 있었던 한문을 사용하여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여성들이 써야한다는 諺文으로 글을 쓴다는 자체가 그들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쫓겨난 문학'이 아닌 동시대를 사는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의식의 발로에서 漢詩 創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전해지고 있는 시들은 그가 남겨놓거나 동생이나, 친정집에 보낸 것들이다. 그녀가 태우기를 희망했던 원고는 모두 불 살라 졌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찾아낸 것은 이미 누구에게 전달된 후의 작품들이다. 이는 蘭雪軒이 自嘲와 悲嘆에 젖어 썼던 말기의 시들이 대부분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틈틈이 동생에게 보낸 것들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후에 그녀의 詩를 읽은 독자층은 멀리 중국의 관원을 비롯하여, 조선

85) 김열규 외 공역, 앞의 책, 8-9면.

의 사대부들이었고 그의 시를 비판한 사람들도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蘭雪軒 작품의 문학적 표현의 특출함을 칭찬하는데는 인색하지 않았다. 다만 '여자'라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결국 두텁던 조선 문단에 남성들의 글과 나란히 놓여 논제 중의 하나가 됐다.⁸⁶⁾ 申緯의『申紫霞詩集』에는 선조, 인조 연간에 작품활동을 한 문인에 대하여 金澤榮은 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동방의 시로는 고려 때의 익재 이제현을 종주로 삼았다. 이조의 선조, 인조 연간에 계승하여 일어난 사람이 가장 성했으니, 오봉 이호민, 오산 처천로, 옥봉 백광훈, 蘭雪軒 허부인, 석주 권필, 청음 김상헌, 동명 정두경 등의 여러 시인이 있었다. 대체로 모두 풍요롭고 웅건하였으며, 높고 화려한 취향을 주장하였다. 영조 이후로는 흐름이 다시 달라져 혜환 이응휴, 금대 이기환 부자와 형암 이덕무, 영재 유득공, 초정 박제가, 감산 이서구 등이 혹은 기이한 것을 혹은 참신한 것을 위주하였으니, 그 세대가 오르고 내린 자취를 옛날에 비교해 보면, 마치 盛唐, 晚唐 때와 비슷하다.

-(金澤榮 <申紫霞詩集序>)⁸⁷⁾

어느 누구도 그녀의 작품 깊숙히 숨어 있는 여성의 절규를 거론하지

86) 李德懋, 『靑莊館 全書』에서 “선조조 이후로 나온 문장은 불만한 것이 많다. 시와 문장을 겸한 김창협이 있고, 시로는 박은을 으뜸으로 친다는 것이 확고한 논평이다. 김창협에 이르러 대가를 이루었으니 이는 어느 체제이든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섬세하고 화려하여 명가를 이룬 이는 홍세태이고, 당나라를 모방하는데 고질화 된 이는 이달이며, 허난설헌은 옛사람의 말만 전용한 것이 많으니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87) 金澤榮, “申紫霞詩集序”.

吾東之詩, 以高麗李益齋爲宗, 而本朝宣·仁之間, 繼而作者最盛. 李五峰·車五山·白玉峯·許夫人·權石洲·金清陰·鄭東溟諸家, 大抵皆主豐雄高華之趣. 自英廟以下, 則風氣一變如李惠賓·錦垞父子, 李炯菴·柳冷齋·朴楚亭·李薑山之倫, 或主尖新, 其一代升降之跡, 方之古, 則猶盛晚唐焉.

는 않았지만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뛰어난 표현속에 농축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蘭雪軒의 시는 가장 여성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군자도 넘보기 어려운 道の 경지를 논했으며, 당파 싸움이나 탁상공론으로 밥이나 축내는 사대부 계층의 남성들의 횡포로 신음의 나날을 보내는 규방 깊은 곳의 아녀자들의 아픔을 고도의 서정적 표현으로 전하고 있다.

그럼 蘭雪軒의 詩를 좀더 깊이 분석하여서 그녀의 작품이 소리없이 토해내고 있는 조선조 여성들의 아픔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女性性 강조로 인한 역설적 효과

蘭雪軒의 많은 작품이 여성들의忍苦의恨과 기다림의情恨을 읊고 있다. 이러한情恨은 자기표현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시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었으며, 蘭雪軒은 그들의 심사를 대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에 한계나 저항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 당대 현실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때 蘭雪軒이 자기 자신의 치지나 심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모든 서책과 글들을 불 살라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당시 유교적인 사고에 젖어있던 조선에서 명문대가의 아녀자로서 자신의 행동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을 안 현명한 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솟음치는恨의 불덩이를 삭이기 위해 글을 짓지 않으면 안되었던 蘭雪軒의忍苦의 깊이는 현대에 사는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20대 중반에 들어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遊仙詞>는 무엇인가 쓰지 않으면 안되었던 蘭雪軒의 절망적 삶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극히

개인적인 세계가 담겨져 있는 <遊仙詞>와는 달리 결혼 초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남편을 기다리고, 그리는 情恨을 담은 시들은 정상적인 인간의 삶에서 소외된 여성들 공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자랐던 결혼전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忍從만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결혼생활의 모순을 절감하면서 蘭雪軒은 남성들의 무의식적이고도 일방적인 횡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형제들의 행장에서 알 수 있듯이 뚜렷한 주관과 냉철한 판단, 비판적 안목과 굽힘 없는 성격이 뿔속에 흐르고 있었던 蘭雪軒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婦道の 모순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忍苦하는 마음을 절실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蘭雪軒이 이러한 메타포를 설정한 이유는 당대의 현실로서는 부녀자들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규범들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덕한 행동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현실에 대한 반동과 저항은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섬세한 시적 표현을 구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성만이 표현할 수 있는 시적 표현, 문학적 상상력을 가려내는 것도 페미니즘 비평의 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蘭雪軒의 섬세한 여성적 감수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고 있는 작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규방의 여인들이 입을 기다리는 시름 어린 삶의 일면을 보여주는 시들이다.

<閨怨 二首>

錦帶羅裙積淚痕

一年芳草恨王孫.

瑤箏彈盡江南曲

雨打梨花盡掩門.

비단 띠 비단 치마 눈물 자국 흥건하니

일년이라 고운 풀에 왕손을 한함이라.

아쟁 당겨 강남곡을 한바탕 타고 나니

배꽃이 지건만 낮에도 문은 닫겨 있다오.

月樓秋盡玉屏空
霜打蘆洲下暮鴻.
瑤瑟一彈人不見
藕花零落野塘中.

가을 다 간 다락에 옥병풍 쓸쓸하고
갈대밭에 서리 지자 저녁 기러기 내린다.
거문고 한 가락에 임의 소식 아득하고
저기 저 연못에는 연꽃조차 시들었네요.

<寄夫江舍讀書>

燕掠斜簷再兩飛
落花掠亂撲羅衣.
洞房極目傷春意
草綠江南人未歸.

추녀를 차지하고 쌍쌍이 드나드는 제비
고운 날개 맞부치며 꽃잎 마구 떨구오.
동방서는 눈 빠지오 애타는 마음
강남에 풀 푸른데 임은 돌아오지 않누나.

<春日有懷>

車臺迢遞斷腸人
雙鯉傳書漢水濱.
黃鳥曉啼愁裡雨
綠楊晴燭望中春.
瑤階幕歷生青草
寶瑟淒涼聞素塵.
誰念木蘭舟上客
白蘋花滿廣陵津.

임 계신 서울이 아스라해 애타는 나에게
쌍잉어에 편지 넣어 한강가에 전해 왔네.
새벽 피고리 울고 시름 속에 비는 오는데
푸른 버들 화창한 봄을 타 한들거린다.
층계에는 얹히고 덮인 풀 우거지고
거문고 처량하다 보얀 먼지 쌓여 있네.
뉘라서 목란배 위의 나그넬 생각해 주노
광나루 가엔 마름꽃만 가득 피어 있으니.

<映月樓>

玉檻秋風露葉清
水晶簾冷桂花明.
鸞驂未返銀橋斷
惆悵仙郎白髮生.

난간을 스치는 가을 바람에 이슬 맞은 잎 말갈고
수정발 싸늘하니 계수나무의 달이 밝다.
난새 타신 임 은하수 다리 끊겨 돌아오지 못하니
서글퍼라, 신선도 백발이 성성하게 났으리.

<閨怨> 두수는 봄과 가을의 배경을 담고 있으면서 봄에 오지 않은

님이 끝내 가을이 되도 오지않았다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함축적인
 형식미까지 갖고 있다. 기다림의 지루함을 잊으려고 아쟁을, 거문고를
 타보지만 임의 소식은 아득하기만 하다. 여기서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
 는 형식은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남편이 아닌 몇 해씩 얼굴도 볼 수
 없는 獨守空房을 암시한다. 이러한 긴 시간의 기다림의 표현은 <寄夫江
 舍讀書>에서도 나타난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찾아들었으니 해가 바
 껴었다는 뜻이다. 깊은 시름으로 홀로 갇혀 지내는 형상이 '동방서는 눈
 빠지오 에타는 마음'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映月樓>에서는 그 기다
 림의 세월이 과장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길게 그려지고 있다. 신선
 세계의 하루는 인생에서 몇십년이라는 고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신선도 백발이 성성하게 났'을 것이라는 표현에서 떠난 임의 야속함이
 배가 되고 있다.

<春日有懷>는 <寄夫江舍讀書>와 같은 배경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
 다. 지명이나 배경이 당시 당시 蘭雪軒이 살았던 곳과한강 건너 글 공
 부를 하러 간 남편을 그리는 사실적 묘사가 고사와 더불어 표현되고 있
 다. 기다리던 임의 편지를 받아 보았으나 온다는 소식은 없다는 허전한
 마음을 주위의 사물에 비겨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4행의 '푸른 버들
 화창한 봄을 타 한들거린다.'는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화자의 걱정이
 풀이 우거져 덮인 층계, 먼지 쌓인 거문고와 대비를 이뤄 절묘한 감흥
 을 전달한다. 즉 화자의 기다리고, 그리워 하는 마음의 절박성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만큼 왕래가 뜸한 상대와의 시간적 거리감이 아득하
 게 그려지고 있어 화자의 애처로운 마음 상태를 더욱 안타깝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위의 시들은 그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화자의 심사를 절실하고
 섬세하게 형상화 시키고 있어서 처연함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전달되는
 작품이다. 또한 남성들의 감성으로는 쉽게 잡아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

한 여성적 감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기다림의 대상인 부제의 남편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 보다는 걱정과 그리움, 기다림의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적 배경과 함께 그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기다림을 주제로 안타까와 애틋한 심사를 읊은 시들이 있지만 우선 4편의 시를 살펴보았다.

<竹枝詞 四首>

空舂灘口雨初晴	공령 여울 어귀에 비가 막 개고
巫峽蒼蒼煙靄平.	무협이 창창한데 안개가 짝 깔렸네.
長恨郎心似潮水	한이라면 임의 마음 밀물과 같이
早時纔退暮時生.	아침에 잠깐 나갔다가 저녁엔 되돌아 왔으면.

瀟東瀟西春水長	양동과 양서의 봄물은 치렁치렁
郎舟去歲向瞿塘.	임의 배는 지난 해 구당으로 떠났네.
巴汀峽裏猿啼苦	파강 굴짜의 구슬픈 잔나비 울음
不到三聲已斷腸.	세 마디도 채 못 들었는데 간장이 끊어지네.

家住江陵積石磯	강릉 땅 돌무더기 갯가에 살다보니
門前流水浣羅衣.	문앞의 강물에서 빨래를 했지요.
朝來閒繫木蘭棹	아침이면 한가로이 목란배 대고
食看鶯鶯相伴飛.	짜지어 나는 원앙 부러워 바라봤죠.

永安宮外是層灘	영안궁 밖은 바로 층층의 여울인데
灘上舟行多少難.	그 위로 배가 가다니 얼마나 어려울까.
潮信有期應自至	밀물은 기약 있어 절로 오지만
郎舟一去幾時還.	가버린 임의 배는 언제나 돌아오노.

또한 <竹枝詞>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되돌아 왔으면’하는 귀절

은 헛튼 짓을 해도 좋으니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여인의 애절하고도 소박한 하소연이 깃들어 있으며, ‘세 마디를 채 못들어도 간장이 끓어진다’는 둘째 수 마지막 귀는 비통하고 절박한 여인의 삶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고사를 전고해서 남편의 부재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그리고 있는 <竹枝詞>는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보다는 사랑과 걱정이 넘치는 여인의 情恨이다.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를 무사히 건넌을까, 물살이 거세기로 소문 난 구당은 무사히 건넌을까, 매일 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혹시 임의 시신이라도 떠내려 오지않나 기다리면서 짝지어 노는 원앙을 부러워 하는 심사가 절실하기만 하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님이 혹시 연안궁 근처 뱃길이 험한 곳을 무사히 못빠져나오는 것은 아닌지 기다림은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만 하다. 여기서 고사의 지명들을 인용한 것은 안개와 물살, 뱃길등이 험난하기로 유명한 곳을 대입하므로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임이 혹시 변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엿보인다. 이는 여인의 마음 속에 드리워진 ‘죽었을 지도 모르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저변에 깔고 있어 변함없는 여인의 마음, 一夫從事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기도 하다.

<秋恨>

絳紗遙隔夜燈紅	붉은 갑사 창으로 막힌 밤에 등불 타는데
夢覺羅衾一半空.	단 꿈을 깨니 비단 금침 절반이 비었구려.
霜冷玉籠鸚鵡語	서리 내려 썰렁한데 새장의 앵무새 지저귀고
滿階梧葉落西風.	서풍에 떨어져 섬들에서 뒹구는 오동잎.

〈洞仙謠〉

紫簫聲裏彤雲散	자줏빛 뽕소 소리에 구름이 흩어지니
簾外霜寒鸚鵡喚.	발 밖엔 서릿발 차고 앵무새 지저귄다.
夜蘭孤燭照羅帷	깊은 밤에 외로운 촛불 비단 휘장 비추니
時見疎星度河漢.	반짝이는 성긴 별 은하수를 오락가락.
丁東銀漏響西風	또드락 물시계 소리 서풍에 메아리 치고
露滴梧枝語夕蟲.	이슬 지는 오동에서 벌레가 울어싼다.
鮫綃帕上三更淚	생 명주 손수건에 한밤을 적신 눈물
明日應留點點紅.	내일 보면 점점의 붉은 자국이리라.

〈洞仙謠〉와 〈秋恨〉, 〈映月樓〉는 가을의 긴 밤을 뒤척이며 홀로 지새우는 여인의 안타까운 심사가 절묘한 표현으로 그려지고 있다. ‘비단 금침 절반이 비었다’는 표현은 당대 유교적 사고에 젖어있던 남성군들에게 부도덕함을 지적받기에 알맞은 표현이다. 기녀들의 이런 표현은 용납할 수 있었던 사대부 남성네들은 규방의 규수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천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蘭雪軒은 이러한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寄夫江舍讀書〉도 너무 방탕하여 부인의 제일인 덕을 갖추지 못했다⁸⁸⁾는 평을 듣는데 일조를 한 작품이다.

〈江南曲 五首〉

江南風日好	강남의 날씨는 좋기도 하죠
綺羅金翠翹.	비단 옷의 금불이 곱기도 하죠.
相將採菱去	끼리끼리 어울려 연밥을 따러
齊盪木蘭桡.	나란히 목란배의 노를 저었죠.
人言江南樂	강남이 즐겁다고 남들은 말해도

88) 註81 참조 -‘〈采蓮曲〉과 함께 두 작품은 뜻이 방탕스리운데 가까우로 시집에 실지 않았다’고 함.

我見江南愁.	내 보기엔 강남은 시름 뿐예요.
年年沙浦口	해마다 포구 앞 모래톱에서
腸斷望歸舟.	나도는 배를 보고 애만 태우니.
湖裏月初明	호수에 둥근 달이 비칠라치면
采蓮中夜歸.	연밭 따서 한밤 중에 돌아들 오네.
輕橈莫近岸	배를 타고 언덕 앞 가지를 마소
恐驚鴛鴦飛.	원앙이 놀래어 날아가니까.
生長江南村	강남땅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少年無別離.	젊어선 이별이란 미처 몰랐죠.
那知年十五	짐작이나 했겠소, 열 다섯 살에
嫁與弄潮兒.	조룡 받는 사공에게 시집갈 줄야.
紅藕作裙衩	연분홍 연꽃으로 꾸민 치마 저고리
白蘋爲雜佩.	새하얀 마름꽃으로 노리개 삼았죠.
停舟下渚邊	갯가로 내려가서 배를 세워 두고는
共待寒潮退.	둘이서 물빠지길 기다렸댔죠.

<江南曲>은 남성들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의 조강지처를 경시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강남'으로 상징되고 있는 곳은 색주가 있는 곳이다. 강남이 즐거운 곳이라고들 하지만 작중 화자에게는 시름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동적으로 낭군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형상화 하여 남성의 놀이개로서, 남성들의 일방적인 횡포 속에서 수동적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의 삶의 모순을 시로서 표현하고자 노력한 여성의식이 깃들여 있다.

〈遣興〉 3, 4首

我有一端綺	나에게 고운 비단 한 끝이 있어
拂拭光凌亂.	털고 훑쳐 때깔이 으리으리해.
對織雙鳳凰	한 쌍의 봉황새 수놓여 있어
文章何燦爛.	그 무늬 정말로 찬란도 하오.
幾年篋中藏	여러 해를 행담 속에 간수했다가
今朝持贈郎.	오늘 아침 임에게 정표로 드려.
不惜作君倚	당신 바지 짓는 거야 상관 없소만
莫作他人裳.	행여나 남의 치마 짓게 마세요.

精金藏寶氣	보배로운 빛이 엉킨 순금에다가
鑲作半月光.	얼레달 아로새긴 귀한 노리개.
嫁時舅姑贈	시집을 때 시부모님 내주신 예물
繫在紅羅裳.	이제껏 다홍 치마에 차고 있었죠.
今日贈君行	오늘 아침 길떠나는 임께 드리니
願君爲雜佩.	서방님 패물에다 차고 계시소.
不惜棄道上	차라리 길 가에 버릴지언정
莫結新人帶.	시앗의 허리띠엔 채주지 마소.

뿐만아니라 당시 夫婦관계가 아무리 從屬관계라 할 지라도 부인이 남편에게 아끼던 정표를 주면서 '차라리 길 가에 버릴지언정 시앗의 허리띠엔 채주지 마소'간곡하게 부탁하는 <遣興> 3,4수는 여인의 굴욕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 '투기'하는 것이 七去之惡의 하나였던 것을 보더라도 여자는 인간의 본능마저 불식하고 살아야 하는 도인 이상의 구도의 길을 강요 받았고, 인간도, 짐승도 아닌 입장에서 屈從만이 강요되었던 모순된 실상을 여인의 애절한 호소로 고발하고 있다. 일부다처제가 용납되었던 그 시절 人倫의 道를 우선으로 삼았던 유학이 낳은 또 하나의 모순이었던 것이다.

결국 蘭雪軒은 당시 가부장제의 속성이 여자들에게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행하는 남성들은 타인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기를 기대하고 지었는지 모른다. 만약 이런 남성중심사회의 부당성과 여성의 짓밟힘에 대한 내용을 겉으로 드러나게 이야기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이기에 체념할 수 없는 사랑에의 기대를 마음 한 구석에 숨기고 있는 여인의 조용한 하소연은 어느 큰 외침보다도 더 강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호된 꾸지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랑과 고통의 진실이 전달될 때 아픔을 준 주체는 괴로워 하기 때문이다. 蘭雪軒은 이러한 기법을 통해 남성 중심의 성차별 의식의 모순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의 사회의 풍습이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蘭雪軒이 규방의 규수로서 대담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의 대담한 자유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蘭雪軒은 대담한 표현에 대한 집념 보다는 당시 고통받는 여인들의 아픔을 보다 절실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그런 기다림의 모순을 느낀 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겠지만 단순히 자신의 비탄을 표출하기 위해 불명예에 대한 각오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여자들이 견뎌내고 있는 기다림의 비참한 심경을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그것들(한시) 읽을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창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문학 작품은 누군가에게 읽혀져서 감동을 주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漢詩나 時調는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것에 만족하는 작가층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漢詩나 時調를 제작시의 개념으로서 근대 이전의 시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蘭雪軒의 시는 시를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餘技로서 쓰기를 즐겨 했던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를 쓴다는 자각

을 가지고 작품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개 한시 작가들이 시를 쓴다는 의식적 자각 보다는 뭔가 그때의 심정이나 기분을 표현하기 위한 적당한 그릇으로 한시를 지었다는 점이 蘭雪軒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적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정신세계를 담기 위한 가장 적절한 표현을 구사했으며, 일정한 상황이 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는 사회 전반이 시의 모토를 이루는 것이다. 金允植은 “동양에서는 <헵릿> 같은 허구로서의 비극은 없고, 만일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시인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비극’이라는 것”이라고 하고, “허구로서 포에씨스(시, 문학) 개념과는 달리 동양에 있어서의 詩란 시인 자신의 삶과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시란 인간의 수양의 일부이며, 내면생활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인식되었음에서 연유되었던 탓”⁸⁹⁾이라고 했다. 이처럼 김윤식은 근대성이라는 어휘의 뜻을 우리 문학에 적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지만 결국 ‘근대성이란 허구적인 것과 실생활을 각각 기능적 독립성으로 파악하므로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시인과 시작품을 분리 불가능한 자리에서 바라보는 안목은 육체와 정신, 상상과 현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점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김윤식은 어려운 시절을 순수하게 겪는 정신주의자에게는 시가 될 수 있다⁹⁰⁾ 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蘭雪軒의 시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자유를 갈망하는 정신의 실현을 꿈꾸며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으며, 당대의 자기 수양과, 경험적 세계를 한시의 형식에 담아 함축적으로 표현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한다. 뿐만아니라 蘭雪軒의 시세계는 경험의 세계와 허구의 세계가 공존하면서 사상과 문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9) 김윤식, 「황홀경의 사상」, (홍성사, 1984), 104면.

90) 김윤식, 같은 책, 105면.

蘭雪軒의 시는 조선시대 어느 계층의 한시 보다는도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폐쇄공간 속에서 삶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생명력을 창출함으로 人間의 原初的인 情을 바탕으로 人間美를 형상화'하였으며, '그 강렬한 生命力은 純粹 文學精神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精神'이라고 평가⁹¹⁾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앞서 파악되어야 할 것은 蘭雪軒이 추구한 세계가 무엇이었으며, 시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을 올바르게 캐어내는 작업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蘭雪軒의 시들은 단순히 자신의 일만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함께 허구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읽는 이들로 하여금 보다 진지하고 강도 높은 반성과 충격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3. 男性 世界의 諷刺와 告發

蘭雪軒은 남성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눈에 거슬리지 않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시키고 있다. <少年行>이나, <感愚四首>, <築城怨二首>, <遣興> 3,4首등은 환락을 좇는 남성들의 행동과 여인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어 여성작가의 소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한 詩想을 전개하고 있어서 여성적인 소재로서 남성들의 횡포를 암시하는 시와 대조를 이룬다.

<少年行>

少年中然諾 젊은이는 신의를 소중히 여겨

91) 이숙희, 앞의 책, 286- 287면.

結交遊俠人.	의협스런 사나이와 결의를 맺네.
展間玉轡轡	백옥의 노리개 허리에 차고
錦袍雙麒麟.	쌈기린 수놓은 비단 도포에
朝辭明光宮	조회를 마치자 명광궁 나와
馳馬長樂坂.	장락궁 언덕길로 말을 달리네.
沽得渭城酒	위성의 좋은 술 사가지고서
花間日將晚.	화류에서 노닐다 해가 저무네.
金鞭宿倡家	황금채찍 잡히고 꽃에서 자며
行樂爭留連.	향락을 누리며 놀이에 팔려.
誰憐揚子雲	누라서 양웅을 딱하다는고
閉門草太玄.	문 닫고 태현경을 초했다는데.

<少年行>은 젊은이의 기개를 읊은 노래로 환락을 쫓는 젊은이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 내일이 없음을 한탄하는 시다. 추측컨데 이 시는 20대 젊은 나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배면에 깔린 감정은 젊은 남자들의 자유 분방함을 부러워 하면서도 걱정과 조소가 담겨져 있는 諷刺詩⁹²⁾로 볼 수 있다.

<相逢行 二首>

相逢長安陌	서로가 장안의 길목서 만나
相向花間語.	마주 보며 좋아라 정을 주었죠.
遺却黃金鞭	황금의 채찍은 놓아두고서
回鞍走馬去.	안장을 돌려서 달려갔어요.
相逢青樓下	서로가 다방골 앞에서 만나
繫馬垂楊柳.	능수버들 앞에다 말을 매고서.
笑脫錦綃裘	웃으며 비단 옷과 가죽 옷 벗어

92) 임헌주, 앞의 논문, 53쪽.

留當新豐酒. 잡히고 신평주를 싹껏 마셨죠.

<大堤曲 二首>

淚盡羊公碑 눈물은 양공의 비에 떨어지고
草沒高陽池. 봄풀은 고양땅 연못 매꿨네.
何人醉上馬 그 누가 술 취해 말을 타고서
倒著白接羅. 흰 두건 거꾸로 쓰고 가는고.

朝醉襄陽酒 아침 나절 양양술에 잔뜩 취해서
金鞭上大堤. 금채찍 치면서 대제를 달리네.
兒童拍手笑 아이들이 손뼉치고 웃어 재치며
爭唱白銅鞮. 저마다 백동제 노래 부르네.

<相逢行>이나 <大堤曲>은 남성들이 술을 벗삼아 즐기는 풍류를 노래한 것으로 여성의 작품으로 보기 어색할 정도로 남성다운 풍치가 가득한 남성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 공통 점이다. 그러나 두 개의 시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본 남성의 풍류의 세계를 풍자하고 있다. <相逢行>은 진정한 풍류의 세계도 모르고 유흥과 환락속에 빠지는 남성의 모습을 조소 섞인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大堤曲>은 귀중한 젊음을 환락 속에서 낭비한 남성의 만로를 이야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환락에 빠져서 귀한 물건도 잃어버린채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색주가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순수한 남녀의 사랑이기 보다는 기생에 빠져 정신을 놓고 노는 남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相逢行>은 단순히 환락의 즐거움을 표현했다기 보다는 주색놀이로 허송세월하는 남성군을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大堤曲>은 환락으로 젊음을 불태워버린 한 남자가 결국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선정을 배운 양공

의 이 앞에서 참회를 하는 모습과 술에 절여져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을 노래하고 있어 남성들의 무모한 환락추구의 경계를 암시하고 있다

〈感恩四首〉

盈盈窓下蘭
枝葉何芬芳.
西風一披拂
零落悲秋霜.
秀色縱凋悴
清香終不死.
感物傷我心
涕淚沾衣袂.

밋밋하게 자라난 창가의 난초
대공과 잎새가 꽃답더니만.
가을 바람 한바탕 거치고 나니
가을 서리에 비통히도 떨어졌구나.
늘씬하다 그 맵시 시들긴 해도
맑은 향기 마침내 가실 수 있나.
너를 보고 내 마음 몹시 언짢아
하염없는 눈물이 소매 적신다.

古宅盡無人
桑樹鳴鸛鵒.
寒苔蔓玉砌
鳥雀棲空樓.
向來車馬地
今成孤兔丘.
乃知達人言
富貴非吾求.

고가라 낮이건만 인적은 없고
뽕나무 위에서는 부엉이 우네.
새파란 바위 옷 층계에 돋고
참새가 빈 다락에 깃을 쳤네요.
전에는 말과 수레 머물더니만
지금은 여우의 소굴 되다니.
달관한 분의 말씀 이제 알겠소
부귀는 나의 몫이 아니란 것을.

東家勢炎火
高樓歌管起.
北隣貧無衣
枵腹蓬門裏.
一朝高樓傾

동쪽 집 세도는 불길과 같아
높은 다락 풍악 소리 왁자글 하고.
북쪽 이웃 가난해 입을 옷 없어
주리며 오막살이 떨었더라오.
하루 아침 세도 집 기울어지자

反羨北隣子.	도리어 북쪽 이웃 부러워 하네.
盛衰各遞代	성하면 쇠하기 마련이라니
難可逃天理.	하늘 이치 피하기 어렵다 마다.

夜夢登蓬萊	간밤 꿈에 봉래산에 올라를 가서
足躡葛陂龍.	맨발로 갈피의 용을 탔다네.
仙人綠玉杖	파아란 옥지팡이 짚은 신선이
邀我芙蓉峰.	부웅봉서 나를 반겨 맞아주었네.
下視東海水	아래로 동해를 내려다 보니
澹然若一杯.	담담하기 한 잔의 물과도 같네.
花下鳳吹笙	꽃아래서 봉황이 피리를 부니
月照黃金罍.	달빛은 황금 잔에 비추이누나.

<感愚>는 첫 수의 여성적인 섬세함에서 시작되어 점차 삶과 부귀영화의 헛됨을 읊고 잇으며, 4수에서는 인간사의 조약함을 직시하고 있는 시인의 정신세계를 엿 볼 수 있다. 남성들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는 호방한 표현은 蘭雪軒의 학문과 삶에의 자세를 암시한다. 아울러 당파 싸움으로 당리당론에 몰두해 있는 당시 사대부들의 아귀다툼을 비웃고 있는 듯 하다. 첫 수 난초가 여성에 비유 되었다면 가을 바람은 남성들의 횡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남성들은 자신이 망쳐버린 난초에 대한 관심이나 기억 보다는 명리를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여 흥망성쇠의 허무함도 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4수의 신선이 사는 봉래봉에 올라 내려다본 동해는 한 잔의 물과 같이 작아 보이는데 어찌 명리를 쫓아 남을 짓밟기를 일삼겠냐는 꾸지람이 시 전체에 흐르고 있다.

蘭雪軒의 남성세계에 대한 관심은 당대 여성이 넘볼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된 여성의 세계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여성의 숨겨진 가치관을 보여

줬다는 데에 깊은 의미를 둘 수 있다.

4. 社會 矛盾 認識과 女性意識 表出

앞 항에서는 당시 사회,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 기득권에 해당하는 양반 사대부 계층 남성들의 나태하고 횡폭한 작태를 여성의 관점에서 풍자적으로 읊은 시들을 보았다.

본 항에서는 蘭雪軒의 사회, 정치적 참여의식이 표출되고 있는 시들을 다루고자 하는데 바로 전항에서 거론된 시들도 엄밀히 말하면 蘭雪軒의 男性觀이자 사회의식이 농축된 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이상 당시 남성고유 영역이었던 사회, 정치에 대한 許蘭雪軒의 안목을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 구조적 모순과 위정자들의 부조리한 행태 속에서 핍박 받는 서민 계층의 애환을 그린 작품을 살펴보는 일은 蘭雪軒의 여성의식 고찰에 도움이 될 뿐더러 여성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억압된 상황 속에서 나로부터 사회로 열리는 여성의 자아 발견과 부당성 인식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蘭雪軒의 시집에는 다른 여성 시인에게서 보기 힘든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다. <築城怨>이나 <出塞曲>, <入塞曲>, <下曲塞>등은 성을 쌓는 일에 시간과 재정적 낭비를 하는 정치의 모순을, 국경지대 수비대와 출정 군인들의 애환등이 다뤄지고 있는데 당시 政勢에 대해 예리한 견해를 가진 蘭雪軒의 애민 의식과 사회의식을 엿볼 수 있다.

<築城怨 二首>

千人齊抱杵	천 사람이 일제히 달공이 들고
土底隆隆響.	지경을 다지니 땅 밑까지 쿵쿵.

努力好操築 힘을 모아 잘들도 쌓는다마는
雲中無魏尙. 운중 땅엔 위상같은 원님이 없어.

築城復築城 성에다 또 성을 쌓고 있으니
城高遮得賊. 성이 높아 도적을 막긴 하겠조.
但恐賊來多 엄청난 도적이 쳐들어 와서
有城遮未得. 성을 두고도 못 막으면 어쩐다지요.

<築城怨>은 성을 쌓고, 또 쌓은들 어찌 도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위정자들에게 던지고 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살기를 성쌓는 것처럼 한다면 오히려 도적은 줄어들 것이라는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당시 空理空論만을 일삼고 국력을 낭비하며 애국은 백성만 괴롭히는 당시 집권층에 대한 풍자가 담긴 시로 해석되기도 했다. 김명희는 이것을 임진왜란에 대한 풍자시⁹³⁾로 보기도 했는데 조정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魏尙을 가탁하여 인물이 없음을 탄식하며 앞일을 예견하는⁹⁴⁾ 蘭雪軒의 炯眼을 엿 볼 수 있다.

<出塞曲>과 <入塞曲>, <塞下曲>은 군인들의 심정과 군대, 싸움터의 모습을 생생하고도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이다.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원정나가 있는 수비대의 살풍경이 현실감 있게 묘사되고 있어서 마치 그 곳에 가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은 글로 착각을 받을 정도이다.

<出塞曲 二首>

93) 김명희, 앞의 책, 57면.

94) 許蘭雪軒의 큰오빠 허성은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와서 풍신수길의 조선침략을 예견하였으며 (『선조실록 - 국조인물고』), 허균은 꿈속에서 임진왜란의 징조를 표상했다(『학산초담』). 허난설헌은 임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죽었는데 이들 형제들의 형안은 놀랍기만 하다.

烽火照長河	변방의 햇불이 환하게 비치니
天兵出漢家.	군사들이 서울집 떠나들 가네.
枕戈眠白雪	창을 베개로 삼아 눈에서 자며
驅馬到黃沙.	말을 몰아 사막에 다다랐다고.
朔吹傳金柝	북풍에 딱따기 소리 돌리어 오고
邊聲入塞笳.	오랑캐 소식 호적에 다가오누나.
年年長結束	해마다 수비에 힘을 쓰건만
辛苦逐輕車.	괴로워라 전쟁에 끌려다니니.

昨夜羽書飛	간밤에 급한 파발 날아들어와
龍城報合圍.	용성이 포위됐다 기별왔구려.
寒笳吹朔雪	호적 소리 눈보라에 올려오는데
玉劔赴金微.	칼 차고 금미산에 내달리네요.
久戍人偏老	오랜 수자리에 몸은 폭삭 늙었고
長征馬不肥.	먼 출정이라 말인들 살이 찌겠소.
男兒重義氣	의기는 사나이의 목숨이라니
會繫賀蘭歸.	부디 하란의 목을 달고 개선하소서.

<出塞曲>은 변방에 출정하는 노래로 전쟁에 시달리는 군사의 애달픈 심정과 군졸들의 괴로움이 담겨 있다. 또한 해마다 수비에 그 힘을 쓰건만 변함없이 전쟁에 끌려다니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스며있다.

<入塞曲>은 출세곡과는 반대로 入城을 노래하고 있다. 국경 수비대를 대상으로 읊고 있는 <入塞曲>은 변방의 수자리로 들어가서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니 패한 말들이 울고 패잔병이 빈 군영에서 묵고 있는 광경, 여러 고을을 수복하고 개선하는 장면이 전편에 묘사되고 있다. 아울러 전쟁의 참담한 상황과 함께 개선 장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에서 오랑캐의 경계를 간구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塞下曲 五首〉

前軍吹角出轅門
雪撲紅旗凍不翻.
雲暗磧西看候火
夜深遊騎獵平原.

선봉장이 호적 불며 군영 나서니
눈보라에 얼어붙어 떨리지 않는 깃발.
구름 자욱한 적서의 봉화를 살피고
밤 깊은데 기병들은 평원으로 내달네.

隨戍悲笳咽不通
黃雲萬里塞天空.
明朝蕃帳收殘卒
探馬歸來試擊弓.

수자리의 구성진 호적소리 아스라하고
황사로 뒤덮여 하늘마저 막혔구나.
내일 아침 오랑캐의 패잔병 모인다고
돌아온 정탐꾼이 시나브로 활을 당기네.

虜馬千群下磧西
孤山烽火入銅鞮.
將軍夜發龍城北
戰士連營擊鼓聲.

오랑캐의 많은 무리 적서로 내려오니
고산의 봉화는 등제로 들어가네.
장군은 밤새 용성 북으로 떠나고
군사들은 군영에서 북을 동동 울리네.

寒塞無春不見梅
邊人吹入笛聲來.
夜深驚起思鄉夢
月滿陰山百尺臺.

추운 변방이라 봄이 없어 대화가 피랴
서글픈 낙매곡이 피리가락에 들려오네.
깊은 밤 고향 꿈에 놀래어 깨니
휘영청 밝은 달 음산의 망대를 비추네.

都護防秋掛鐵衣
城南初解十重圍.
金戈滿盡單于血
白馬天山路雪歸.

사령관이 가을 공세 막느라 갑옷을 걸치고서
성남쪽 겹겹의 포위망도 뚫어버렸네.
창칼에 묻은 흉노의 피 말끔이 씻고
백마는 천산에서 눈을 밟고 돌아오네.

〈塞下曲〉은 국경에서 싸움하는 국경 수비대의 노래이다. 당시의 내외 정세는 남에는 일본, 북에는 청조가 일어나서 민심이 흉흉하였으며,

이진족의 침입으로 북변의 위중함이 가중되고 있었다. 앞에 인용한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집을 떠나 추운 북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병사들이나 백발이 성성하도록 병사로서 한 길을 걷는 수비대의 환희 뒷편에 그들을 떠나 보내고 홀로 독수공방 외롭게 사는 많은 여성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이밖에도 蘭雪軒의 의식이 사회로, 또는 타인으로, 고통 받는 백성으로 열려 있는 작품은 많다. 예를 들면 대궐살이를 노래한 <宮詞>라든가, 가난한 처지의 과연한 여자의 하소연을 노래한 <貧女吟>, 장사꾼의 아내의 심정을 그린 <賈客詞>등이 蘭雪軒의 사회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 시들은 모두 당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蘭雪軒 자신과 같은 여성의 심사외에도 다른 계층의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 당대 여성들의 부당한 삶과 구조적 모순을 인식한 인간주의자로서의 蘭雪軒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蘭雪軒의 여성 의식은 현대적인 의미의 기존 질서에 대항하거나 반대하는 선동적인 개념의 페미니즘은 아니다. 여성에게는 모든것이 닫혀있는 사회구조, 윤리관 속에서 서서히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과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발견을 해 나가는 것이 許蘭雪軒의 여성의식이다. 가부장제에서의 성차별이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한 사회체제의 기본 윤리였던 그 시절에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그 이유 하나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보다는 종속된 관계 속에서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도 불행을 잉태하는 것이었다.

蘭雪軒은 자기 인식과 더불어 사회 구조적 모순을 깨닫는 그 순간 부터 자기 앞에 놓여진 닫힌 세계를 보며 恨의 일생을 살아야 했다.

그녀에게 깨달음을 준 학문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서 마음의 숨통을 여는 글을 지어 위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유를 열망하는 기질은 단힌 사회 속에서는 재난이 될 뿐이어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불행한 자기 인식은 점차 타인들의 삶으로 옮겨가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읊은 것이 그녀의 여성의식이었다.

<莫愁樂>은 당대 여성들의 공통된 삶의 과정을 감정을 배제한 채 담담히 노래한 처연한 시이다.

<莫愁樂>

1

家住石城下	집이 석성 아래 살다 보니
生長石城頭.	석성 바닥에서 낳아 자랐죠.
嫁得石城婿	석성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니
來往石城遊.	오가며 석성에서 노닐 밖예요.

2

儂住白玉堂	일찌기 백옥당에 살고 있을 때
郎騎五花馬.	남군은 천리마를 타고 다녔죠.
朝日石城頭	석성에 아침해가 뜰올라치면
春江戲雙舸.	봄 강에서 쌍돛대 타고 놀았죠.

이 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감정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마음속에 용솟음치고 있는 폭포와도 같은 감정의 줄기를 억누른채 겉으로는 태연한 사실 전달에 머물고 있어서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하는 시이다. 수식어가 전혀 없이 짧은 글자 속에 석성이라는 글자가 반복되고 있으며 많지 않은 몇 개의 글자가 한 여인의 일대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독특한 표현 기법이 되고 있다. 더구나 '아 슬프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작중 화자의 슬픈 마음이 강하게 전달되고 있어 신비스

럽기 까지 하다.

이 작품은 한 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쫓으며, 그곳의 남자와 결혼하여 그 동네에서 살았다는 내용이 첫째 수에 담겨 있다. 그러나 둘째 수는 '나'와 '남편'의 대조적 삶이 그려지고 있다. 자신이 백옥당에 살때 남편은 보란듯이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가다녔으며, 눈만 뜨면 뱃놀이를 즐기는 등 환락의 삶을 살더라는 이야기다. 작중 화자는 자신도 천리마를 타고 놀러다니고 싶고, 뱃놀이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입밖에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간절한 마음, 닫힌 삶에 대한 절어진 恨의 강도가 은밀하게 배어나오게 하는 뛰어난 작품이다.

당시 여인 莫愁와 같은 일생을 살지 않은 규방의 여인은 없었을 것이다. 전통적 家父長制下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갇혀 살아야 했던 이인의 삶을 담담하게, 함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듯하다.

蘭雪軒의 詩중에는 宮人의 운명적인 비극을 노래한 <宮詞 二十首>가 있다. 이 소재는 중국의 李白, 王昌齡을 비롯 王建에 이르러 꽃을 활짝 피었다. 杜甫나 白居易, 화예부인 등의 宮詞도 유명하며 허균도 100수나 되는 궁사를 지었는데 궁중의 일들을 사실적이고 치밀한 문체를 구사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휴머니티의 눈으로 사방에 갇혀 지내는 宮女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였다.⁹⁵⁾ 거기에 비해 蘭雪軒은 여성만이 감지할 수 있는 섬세한 감각으로 외로운 궁녀들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조 여성시인 중에 <宮詞>를 지은 시인은 蘭雪軒 뿐이다.⁹⁶⁾ 다음은 蘭雪軒의 <宮詞> 중에서 궁녀들의 갇힌 삶과 하염없는 기다림을 읊은 首를 살펴 본다.

95) 허균의 宮詞의 내용은 충실하여 선조의 사대의 효, 과기급제, 私忌, 궁중세시기, 궁녀의 동성에까지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김명희, 앞의 책, 60면.

96) 김명희, 앞의책, 60면.

4

鸚鵡新調羽未齊
金籠鎖向玉樓棲.
閒回翠首依簾立
却對君王說隴西.

새로 기르는 앵무새 아직 깃들지 않아
새장을 잠근 채 옥루에서 깃들게 하네.
열없이 파란 목 돌려 발안을 향해서
상감께다 농서의 사투리로 우짖네.

8

清齋秋殿夜初長
不放宮人近御床.
時把剪刀裁越金
燭前閒繡紫鴛鴦.

호젓한 가을 대궐 초저녁은 길기도 하이
궁인이 다가와서 임금님 모시지 못하게 하네
때때로 가위 잡고 값진 비단을 잘라
황춧불 앞에서 하염없이 원앙을 수 놓네.

9

長信宮門待曉開
內官金鎖鎖門回.
當時曾笑他人到
豈識今朝自入來.

새벽에 장신궁 문 열리길 기다리는데
내관이 금쇄문 지키고 돌아를 가네.
그전엔 남의 입궁 비웃은 나였건만
어찌타 오늘엔 내가 들줄 알았뇨.

13

氷簟寒多夢不成
手揮羅扇撲流螢.
長門永夜空明月
風送西宮笑語聲.

서늘한 대자리 하도 차 꿈을 못 이루고
비단 부채 부치며 날으는 반디를 쫓네.
장문궁 긴긴 밤에 숙절없이 달은 밝은데
바람에 들려오는 서궁의 다사한 말소리.

16

鴨爐初委水沈灰
侍女休粧掩鏡臺.
西苑近來巡幸少

향로에다 물에 젖은 재를 부으니
시녀가 단장을 마치고 경대를 덮네.
서원에는 요즘 순행이 뜸해

玉簫金瑟半塵埃.

릉소와 비파에는 먼지가 자욱하이.

17

新擇宮人直御床

새로 간택된 궁녀 임금님을 모시니

錦屏初贈合歡香.

병풍을 치고 합환의 은총을 내리셨죠.

明朝阿監來相問

날이 밝아 아감님이 꽃사연을 묻기에

笑指胸前小佩囊.

웃으며 앞가슴의 노리개 주머니를 보였죠.

20

當夜中官抱御書

밤이 되자 내시가 책을 끼고 들어와서

玉籤抽付卷還舒.

서산을 빼서 놓고 읽는 대로 접고 펴고,

慰勲護惜金蓮燭

저으기 안스러워 누런 연꽃 촛불 가지고

學士歸時送直廬.

학사님 돌아갈 때 상직방까지 배웅하였네.

<宮詞>의 詩들은 때로는 대궐의 아침 조회, 임금의 행차, 식사, 말타기, 꽃놀이, 청소, 궁녀들의 글공부 등의 풍경을 섬세한 여성적인 터치로 묘사되고 있지만 반 이상이 임금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사는 새장안에 갇힌 새와도 같은 신세에 대한 탄식이 깔려 있다.

第四首는 宮女들을 새장에 갇힌 앵무새에 비유하여 자조하고 있다. 第八首는 임금님을 못 모신 가을 밤이 길어 죄없는 비단 자락만 가위로 자르고 있든 宮女의 애치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第九首는 궁궐에 들어가는 일이 영예스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암시한다. 임금의 눈에 들면 지체높은 사람이 되어 호사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보다는 평범한 아낙의 행복조차 맛 볼 수 없는 궁중의 생활이 비참함을 익히 들어 아는 양 入宮을 자조하고 있다. 第十三首와 第十六首는 홀로 밤을 지새는 궁녀의 외로움을 그렸다. 第十六首는 밤새 잠 못 들고 밤을 밝힌 궁녀가 허탈하게 아침을 맞는 내용이다. 第十七首는 임금님과 의 습

歡의 기쁨을 읊고 있으나 이미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第二十首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밤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공부를 하는 宮女들의 모습을 적고 있지만 궁안의 내시들 조차 안스럽게 여긴다는 처연한 내용이다.

蘭雪軒은 宮女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처녀시절 살았던 집이 대궐 가까이에 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결혼 후 자신의 신세가 궁녀와 같이 간혀 있으며, 궁안의 법도만을 따라야 하는 부자유스런 점이 같다는 생각에서 假託의 의미를 갖고 관심을 가진 것인 지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送宮人入道〉

拜辭清禁出金鑾	태청궁 하직하고 금란전을 물러나와
換却鴉鬟著玉冠.	나인의 타래 머리 쪽도리로 바꿔 썼네.
滄海有緣應駕鳳	푸른 바다 인연 있어 봉황을 타고
碧城無夢更驂鸞.	벽성의 꿈이 없어 난새를 탔네.
瑤裙振雪春雲暖	치마자락 눈을 떨치니 봄구름 따스하고
瓊珮鳴空夜月寒.	울리는 옥패소리 달조차 싸늘하네.
幾度步虛銀漢上	몇 번이나 은하수의 허공을 거닐었나
御衣猶似奉宸慙.	주신 옷 입으니 나랏님 받들에 못지 않네.

그러나 <宮詞>와는 다른 詩인 <送宮人入道>는 궁녀가 수도를 하러 도관에 들어감을 배웅하는 내용으로 갇힌 세계에서의 탈출을 의미하고 있다. 궁궐을 하직하고 仙의 세계로 향하는 궁녀의 심사를 읊은 이 詩는 사랑과는 인연이 없고 오히려 신선세계와 인연이 있어 봉황을 타고 은하수의 허공을 거니노니 임금님 받드는 즐거움에 못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궁녀의 대궐 생활을 탈출한 즐거움을 암시하는 듯 하다. 蘭雪軒은 자신이 그리워 하는 탈속의 의지를 <送宮人入道>의 宮女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蘭雪軒이 보는 대궐이라는 장소는 자신이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제한된 삶의 행동 반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임금님 모실 날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궁녀들은 언제 율 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자신과 같은 입장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이지만 자신의 의사대로 살 수 없는 타자성의 존재, 갇힌 채 낙이라고는 임금님의 은총 받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도 나이가 들면 바랄 수 없는 꿈이 되고 마는 절망 속에 사는 여인네들의 심사는 蘭雪軒과 동병상련인 것이다.

아울러 蘭雪軒은 자신의 비인간적 삶, 부당한 삶에 대한 깨달음으로 다른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들의 심사를 대리 표현한 것은 물론 자신의 심사를 宮女의 삶을 빌어 표출시키는 二重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蘭雪軒의 詩들은 '그냥 쓰여진' 것은 없다. 당시 漢詩나 時調를 지었던 사람들은 여흥의 加味를 위해서 현장에서 짓거나 餘技로서, 또는 어떠한 동기가 있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현대적 개념의 文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蘭雪軒은 의식의 유일한 분출구로서 쓰지않으면 안되는 강한 創作에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의 환경은 신세 좋게 시를 읊조리며 즐길 자리도, 겨를도 없었다.

蘭雪軒의 글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표현된 의식의 엑기스라 할 수 있다. 닫혀 있는 세계를 향한 유일한 숨구멍이 시짓기 였던 그녀는 삶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 곧 성차별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었으며, 자연적으로 詩속에 표출되었다. 그러나 蘭雪軒은 자신의 그런 글을 경계하였다. 당시의 법도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였고 경거망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면의 강한 욕구와 외적인 제약은 蘭雪軒의 글을 문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한 일차적인 요소가 되었다. 자유와 인간애를 갈망하는 내면의식을 사회적 윤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蘭雪軒의 創作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이었으며, 창작 정신이기도 했다.

이러한 荊棘에서 나온 <賈客詞>나 <貧女吟>은 蘭雪軒이 숙고 끝에 조심스레 표출한 사회에 대한 여성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으로서 서민 계층의 삶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대 분위기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賈客詞 三首>

朝發宜島渚	아침나절 의도의 물가를 뜨자
北風吹五兩	북풍이 역풍으로 불어오누나.
船頭各洗酒	벚전에서 제가끔 싹껏 마시고
月下齊盪槳	달밤에 일제히 노 저어 간다.

疾風吹水急	바람이 세차서 물살 거세니
三日住層灘	여울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지요.
少婦船頭坐	젊은 아낙 벚전에 도사리고 앉아
焚香學算錢	향불을 피워 놓고 돈셈 배우네.

掛席隨風去	돛 달고 바람따라 줄이 가다가
逢灘即滯留	여울을 만나면 이내 머물죠.
西江波浪惡	서강의 풍랑이 사납다 보니
幾日到荊州	며칠이 걸려야 형주에 달노.

<賈客詞>는 장들배이 처럼 일정한 거처가 없이 배를 타고 떠돌아 다니는 장사치의 삶과 그의 아내의 심정을 읊은 詩이다. 모진 바람이 불어 닥치면 가도 오도 못하고 아무데나 정박하여 기약없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삶의 고달픔이 엿보인다. 蘭雪軒의 장사꾼에 대한 관심은 간

혀 사는 삶에의 반동적 의식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삶 속에서의 동경, 그러나 그의 아낙의 모습에서 지루하고 애닦은 이인의 삶을 확인할 뿐이다.

〈貧女吟 四首〉

豈是乏容色	인물도 남에게 빠지지 않고
工鍼復工織	바느질도 길쌈도 곧잘 했건만.
少小長寒門	어려서 가난한 집안서 자라
良媒不相識	중매가 알아주질 안하더군요.

不帶寒餓色	추위와 주림은 내색도 않고
盡日當窓織	진종일 창가에서 길쌈만 하죠.
唯有父母憐	부모님은 가엾다고 애태우시나
四隣何曾識	이웃들은 아는체도 안하더군요.

夜久織未休	이속토록 쉬지않고 길쌈하자니
嗚嗚鳴寒機	삐걱삐걱 베를소리 처량도 하죠.
機中一疋練	베를에 감겨진 한 필의 명주
終作阿誰衣	누구의 옷감인데 이리 짚다뇨.

手把金剪刀	가위를 쥐고서 새옷 마르는데
夜寒十指直	밤이 차서 손가락 곱아지네요.
爲人作嫁衣	남을 위한 혼수를 짓고 있소만
年年環獨宿	해마다 홀로 자는 내 신세예요.

〈貧女吟〉은 우리 시대의 소외된 계층의 애환을 노래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사계」97)에 길 맞는 詩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

97)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대학교 노래 씨름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대학

지 못하고 산업전선에 들어가 노동에 시달리는 젊은이의 애환을 그린 「四季」의 내용은 <貧女吟>과 거의 흡사하다.

「四季」는 사회 제도의 모순과 부조리를 의식적으로 표출시키려는 집단의 의도적인 노래로서 공장에서 추울 때나 더울때나 사시사철 야간작업을 하며 청춘이 저물도록 미싱을 돌리는 미싱공들을 우리 시대에 소외되고 착취 당하는 사람들로 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사회 참여적인 노래이다.

4백년 전 조선의 땅에도 가난으로 결혼도 못하고 남의 혼수가 될 옷감을 밤새도록 짜는 소외된 계층이 있었고 이를 노래한 詩人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貧女吟>은 분명 사회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어린 작품이며 蘭雪軒의 사회로 열린 여성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秀作이다.

한 가난한 이인의 고단한 신세를 적절한 상황 설정과 섬세한 표현으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貧女吟>은 당시 서민들의 고통스런 사회상을 함축적으로 보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더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남의 옷이나 지어야 하는 여성은 이 가난한 아가씨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道文一致라는 봉건의 굴레로 순종만이 미덕이었던 조선조 여인의 심정⁹⁸⁾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노래 모임으로 결성되어 활동중이다. 이들은 유행가나 외국 음악에 반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 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려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계」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빨간꽃 노란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구름 솜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쓰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비추고/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흰눈이 온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공장 하얀 불빛 새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고/”

蘭雪軒의 시를 빈껍데기 검토해 본 결과 단순히 남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인의 情恨을 읊었다는 느낌 이번엔 남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저지르고 있는 횡포를 감지하게 된다. 시의 표현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하소연이 애꿎을수록 보는 이들은 話者를 동정하기를 그치고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무심함과 비인간성에 화를 내게 된다. 이 점이 곧 蘭雪軒 문학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고발성'이다. 蘭雪軒은 자신의 고통의 표현을 넘어서서 허구의 시상 전개를 통해 문학적 표현의 최고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허구적 장치는 당대 여성에게 패쇄적이었던 사회 속에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학적 기교가 되었으며 蘭雪軒의 의식 저변에 숨겨져 있던 여성의식을 직설적인 방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장치가 되었다. 즉 상대를 직설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공격하거나 부당성을 강조하지 않는 대신 아름다운 이성적 정한으로 애뜻하고 처연하게 그리므로써 남성우월주의의 모순을 남성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역설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변방의 병사들의 애환을 통해 명리에 급급한 사대부 남성들이 과거공부를 핑계로 기생집이나 드나들며, 탁상공론으로 파벌싸움에 몰두하는 無爲徒食 小人輩들임을 대치적으로 암시하고 있어 고발문학의 성격을 더욱 확고하게 해 주고 있다.

결국 蘭雪軒은 당대 삶의 모순과 인간관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게 하는 시적 구조와 허구적 장치를 도입한 문학예술가였으며, 여성의 모순된 삶을 처절하게 응시하고, 남성들의 횡포를 고발한 당대여성의식의 선각자였다.

98) 김명희, 앞의 책, 49면.

IV. 결 론

이상에서 조선조 여성작가인 許蘭雪軒의 생애와 문학 속에 깃든 여성 의식을 살펴 보았다. 이미 400년전에 2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조선시대 한 여성의 발자취와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확증을 잡기보다 추론적인 가정이 불가피 했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대한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계되는 문헌의 참고를 중시하였다. 이를 통해 蘭雪軒의 사상 형성 배경을 유추해 냈으며,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의 학문과 사상, 기질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蘭雪軒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세 사람, 즉 오빠 허봉과, 동생 허균, 스승 이달의 공통된 의식을 추출하였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존귀함, 휴머니티의 정신의 소유자들이었으며, 개인의 자유보다 권위를 더 중시하였던 유교적 사회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반항적 기질과 자유에의 인식이 뚜렷함을 공통의 의식으로 이해하였다.

蘭雪軒의 사상도 이들의 영향하에 형성되었을 것을 추론하여 그녀의 삶과 문학 속에 인간주의와 자유에의 갈망, 부당한 여성인식 등이 어떻게 표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才勝德薄 美人薄命한다는 말대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가 출가 후 부딪힌 봉건적 가부장제의 모순과 맹목적인 屈從만이 강요되었던 성차별에의 인식을 그녀의 '三恨' 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아울러 시참으로 죽음을 예언하고 27세의 나이로 요절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살일 가능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나 당시 許蘭雪軒에게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완벽한 괴리감과 절망감이 있었음을 여러 참고 자료로 검증을 하였으나 어디에도 '자살'

에 대한 언급이 없이 추론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끝으로 蘭雪軒의 삶과 문학 속에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을 고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리한 의식의 형성배경과 삶의 역정을 전제로 연구하였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성의식은 간힘의 세계에서의 탈출을 자살로서 실현했을 가능성과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漢詩 創作을 하므로써 인간의 동등성을 구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문학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은 첫째, 비극적 이성성의 강조로 역설적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남성 고유 영역에의 과감한 도전으로 이성성을 극복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사대부 남성들의 나태하고 횡폭한 세계를 풍자하고, 아울러 여성에 대한 횡포를 지적하고 있으며, 당시 사회상으로 볼때 이성에게는 금기시 되었던 사회 정치적 안목과 관심을 작품을 통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 구조의 모순인식과 이성의식의 표출이다. 이는 이성들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타인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타자성의 삶을 지적하고 있으며, 간힘 환경 속에서 엄격한 규범을 목숨처럼 지키며 사는 宮女의 애환을 통해 진통 유교의 굴레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했던 당시 여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또한 가난한 서민층 이성들의 서글픈 삶에 관심을 보이므로써 자아의 발견에서 타인의 고통을 대변하는 여성의식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許蘭雪軒은 당시 사회가 원하지 않는, 체제의 부조리를 깨닫고, 같은 인간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성을 인식한 뛰어난 여성이었지만 당시 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 지탱해 나갈 의지마저 앗아간 철저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희생물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조 여성 문인으로서 여성이라는 성적 장애로 인해 남성 못지 않은 기개와 호방한 자유의식, 뛰어난 문학적 감수성을 가졌으면서도 끝내 피워 보지 못하고 스러져간 許蘭雪軒의 의식은 현대 페미니즘의 정신으로 이어져 파악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 전>

具樹勳, 「稗林」.

朴趾源, 「熱河日記」.

申 緯, 「申紫霞詩集」.

申 欽, 「晴窓軟談」.

安鼎福, 「順庵集」.

李德懋, 「青莊館全書」 「清脾錄」.

李晬光, 「芝峰類說」.

李時讓, 「涪溪紀聞」.

李 瀾, 「星湖僊說」.

任相元, 「郊居瑣編」.

許 筠, 「惺所覆瓿藁」, 「學山樵談」, 「惺叟詩話」.

許蘭雪軒, 「蘭雪軒集」.

許 筠, 「荷谷集」.

洪萬宗, 「詩話叢林」.

<논 저>

김동욱 해설, 「許筠 研究」, 새문사, 1981.

金明姬, 「許蘭雪軒의 文學」, 집문당, 1987.

金錫夏, 「韓國文學의 樂園思想 研究」, 일신사, 1973.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金川淑, 「조선조 이류문학의 연구」, 혜진서관, 1990.

金允植, 「황홀경의 사상」, 홍성사, 1984.

- 金亭子,「韓國女性小說研究」,민지사,1991.
- 金智勇,「歷代女流漢詩文選」,大洋書籍,1980.
- 金台俊,「朝鮮小說史」,한길사,1990.
- 文璇奎,「韓國漢文學史」,정음사,1961.
- 孫晉泰,「女性の地位」,태학사,1981.
- 吳海仁 譯,「蘭雪軒 詩集」,路出版,1980.
- 李家源,「韓國漢文學史」,보성문화사,1985.
- 李能和,김상익 역,「朝鮮女俗考」,대양서적,1978.
- 李淑姬,「許蘭雪軒詩論」,새문사,1987.
- 이이화,「허균의 생각」,뿌리 깊은 나무,1980.
- 이효재,「女性과 社會」,정우사,1979.
- 鄭鉉東,「洪吉童傳研究」,대구,문호사,1961
- 黃在君,「韓國古典女流詩研究」,집문당,1985.
- 허경진 엮음,「許蘭雪軒 詩選」,평민사,1987.
- 허경진 엮음,「허균의 詩話」,민음사,1982.
- 허경진 엮음,「許筠의 詩話」,민음사,1982.
- 허경진 엮음,「玉峯,竹西 詩選」,평민사,1987.
- 허경진,「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 어려워라」,청아출판사,1991.
- 許米子,「許蘭雪軒研究」,성신여대 출판부,1984.
- 許米子,「韓國詩文學研究」,성신여대출판부,1982.
- 許米子,「韓國女流文學論 -古典篇」,성신여대 출판부,1991.
- 許米子,「李梅窓研究」,성신여대 출판부,1988.
- 헤스터아이젠슈타인,한정자역,「현대여성해방사상」,이화여대출판부,1989
- 존 스튜어트 밀, 김예숙 역,「여성의 예속」,이화여대 출판부,1979.
- K. K. Ruthven, 김경수 옮김,「페미니스트문학비평」,탐출판사,1989.
-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옮김,「자기만의 방」,도서출판 예문,1990.

<논 문>

- 姜淑子, “한국여성근대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성신여대 출판국, 1990.
- 金淑姬, “막힌 사회에서의自我를 찾아서”, 「이성과 문학(현대편)」, 성신여대 출판부, 1991.
- 김윤식, “60년대 문학인식의 종언과 전혜린”, 「문학과 비평」, 1991 겨울호.
- 金亨子, “한국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동양문학」 33호, 1991.
- 김준오, “현대시와 페미니즘의 인식”, 「문학과 비평」, 1991 겨울호.
- 徐載男, “許蘭雪軒과 그의 詩研究”, 숭진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 徐廷惠, “許蘭雪軒考究”,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 서지분, “영문학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흐름”, 「여성해방의 문학(또 하나의 문화)」 제3호, 평민사, 1987.
- 宋明姬, “한국 소설의 페미니즘”, 「동양문학」 33호, 1991.
- 柳賢淑, “孫谷 李達의 詩 研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7.
- 李淵信, “許蘭雪軒의 漢詩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9.
- 林賢珠, “蘭雪軒文學研究”, 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張 眞, “許蘭雪軒論”, 동악어문학회, 1980.
- 鄭英子, “한국 문학의 페미니즘적인 비평접근”, 「동양문학」 33호, 1991.
- 조윤식, “朝鮮朝 女流詩歌에 나타난 恨의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여성해방의 문학(또 하나의 문화)」 제3호, 평민사, 1987.
- 좌담/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여성해방의 문학(또 하나의 문화)」, 제3호, 평민사, 1987.
- 허경진, “許筠詩研究”,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4.

{Abstract}

Study on the feminism shown in the literature and life of
Heo Nan-Seol-Heon

- In search for oneself in a closed society -

Kim Jong-So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Through this thesis on a female writer, Heo Nan-Seol-Heon(허난설현), who lived in the age of Chosun Dynasty, I have tried to investigate the feminism implicated in her literature and life. I should confess that in a search for a female writer who had lived 400 years ago and survived only a short life of 27 years, it was unavoidable to make some assumptions and reasoning in analyzing her life and literature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I did my best to look up all the related books and materials which were available, for valid verifications and maximum inspections on her scholarly works, thinkings, and life itself, as well as those of people around her in that age.

I also have investigated on the thoughts and ideas in common among the three men - her elder brother Heo Bong(허봉), younger

brother Ilco Kyun(허균), and her teacher Lee Dal(이달), who are possibly considered to have most influenced on life and the world of Nan-Seol-Heon. They were the people of humanistic spiritualism who had put more value on the respect for human beings and did their best to overcom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ir society, a Confucian one. They also share common features in the sense that they had insubordinate personality with clear recognition on human freedom.

It is assumable that the thoughts and works of Nan-Seol-Heon had shaped up under their influences. Under this assumption, I have tried to reveal how Nan-Seol-Heon dealt with her idea of humanism and the thirstiness for freedom, and how she recognized on being a woman in such a closed society, through her life and literature. In the analysis of "Three Resentments (三恨)" I tried to show that how Nan-Seol-Heon had reacted against social contradictions and sexual discriminations through her married life, which had been known unhappy, in a male-centered society. At the same time, I searched for the possibility that she had committed suicide from the facts that she had predicted her death in her poem "Sicham(시참)" and she had died young in the age of 27 years old. However, even though many bibliographic materials helped to reveal that she had suffered from deep alienation and despair as a woman, a mother, a wife and a daughter-in-law in a confucian family, any of these references makes no comments on 'her suicide.' Therefore, any possibility on her suicide will only be dealt as a form of reasoning. In the later part, based on the above investigation on her thoughts

and short but suffered life, I have studied the feministic elements found in her life and literature.

The feminism shown in her life is best induced into the two major elements. That is, a possibility that she tried to escape from a closed world by killing herself. Another one is that she tried to be equal to men by writing Chinese poetry, which was one of exclusive possessions of men at that time.

To summarize the feministic ideas rooted in her literature, first, she took paradoxical effects by emphasizing tragedy of being women in a male-centered society. Second, she tried to overcome the limit of being women in such a society by making defiant challenges towards the exclusive world of men. For example, she satirized laziness and violence of the elite males and wrote on the female abuses by them. Also in many writings, she tried to express her political interests and opinions, which were tabooed for women in that society. Third, she expressed her feministic ideas through recognizing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society. She pointed out the facts that the women in the society could not manage their lives subjectively and that their lives only depended on other people's decisions. In the writing on the life of a court maid, who was destined to live in a closed court and suffered from the strict regulations she depicted the lives of women at that time who were suffered from the male-centered traditions and confucian bandages of the society. At the same time, through her interests in low-classed women who were double-suffering by their destined poverty Nan-Scol-Ieon deepened and broadened her recognition on

the feminism from her own life into the understanding of other women.

On the conclusion, Nan-Scol-Hcon was a outstanding and talented woman who had realized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in the society and had sheer recognition on the unjust treatments against women in her times. She must have been a outcast of the society. Since the society did not tolerate her thoughts and writings, it was unavoidable that she became a victim herself in that male-centered society. Thoughts and literatures of Nan-Scol-Hcon, who could not have but lived a tragic life due to her sexuality even though she was a talented writer with a defiant spirit and sheer recognition of freedom, should be re-interpreted through the ideas of modern feminism.